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역사세계의 주권자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사망의 해를 진노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금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간직리라 그가 내 이름을 인즉 내가 그를 높이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편 91:14-15)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45호 2011년 8월 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노르웨이 연쇄테러, 인간 죄성이 원인

월드, '극우주의 아니다'...이민정책에 대한 크리스천의 해석 소개

지난달 22일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최소 91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노르웨이 수도에서 30km 떨어진 우도야 섬에서 발생한 노동당 청소년 캠프 총기 사건으로 최소 84명이 사망했다. 앞서 몇 시간 전 오슬로 도심 정부청사 폭탄 테러로 확인된 사망자 수 7명을 더하면 이날 총기난사 사건과 폭탄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91명에 달한다.

노동당 청년조직 주관으로 열린 이 캠프에는 14-25세 사이의 청소년 600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총격을 피해 500m 떨어진 육지로 헤엄쳤다. 경찰복을 입은 테러범 베링 브레이빅(Behring Breivik)은 소년들을 모아놓고 총기를 난사했고, 경찰에 진압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섬 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학살을 일삼았다.

동 테러 사태의 용의자는 히틀러를 동경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노르웨이의 다문화이민정책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특히 이슬람교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중세의 십자군을 동경하는 근본주의적 크리스천이라고 보도됐다. 결국 극우민족주의와 근본주의적 기독교 이념으로 무장한 베링은 자신의 폭력 사용이, 바로 유럽을 이슬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의 일환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베링이 품었던 "정의롭지 못한 분노"에 대하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월드(World)지는 하나님이나 아닌 사람이 역사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 자체를 논하기 이전에 모든 정의롭지 못한 분노나 폭력은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하고, 베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Lessons from Norway).

현재까지 테러사태 용의범의 신상배경을 통해 이번 사건은 9.11테러 이후 부각된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문화충돌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극우민족주의자들의 저항과 뿌리가 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유럽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비롯된 반유대주의를 통해 엄청난 희생을 경험했고, 현재까지 이러한 민족주의적 사상배경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을 통해 현재 문제제되고 있는 세계화속의 다문화주의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가 아닌 실제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의 이슬람 인구

의 급팽창은 단순한 "이슬람 공포증"을 벗어나 반 이슬람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의 고통과 대처 방안으로 수십 년 동안 이슬람권의 이민을 허용해온 경제정책이, 이제는 유럽 현지인들과 이슬람 이민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링이 테러사건 전에 천명한 선언문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산물이다. 그는 "오는 2083년까지 유럽 각국이 극우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 무슬림 이민자를 내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유럽을 탄생시켜 기독교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반 이슬람 정책을 확산시키고 있다.



노르웨이 우도야 섬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장소인 청소년캠프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오열하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내 무슬림들은 노르웨이 연쇄 테러사건을 계기로 유럽 내에서 반 이슬람 기류가 더욱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노르웨이 이슬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에 대한 공격은 이슬람위원회 회원들의 모국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다"며 테러 행위를 강력 비난하고 이번 참사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알-자지라가 24일 보도했다.

노르웨이 이슬람문화센터 간부 모하메드 타이프도 "노르웨이 내 무슬림 대부분은 이민자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들"이라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가 아닌 노르웨이인으로서 이번 테러를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최근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인 우파를 끌어안기 위해 무슬림과 일정 거리를 두는 정책들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일반인들의 이슬람 혐오증이 맞물리면서 반 이슬람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와 벨기에에는 올해 들어 무슬림 여성의 전통 의상인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유사한 법률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노르웨이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구하는 우파 성향의 진보당이 최근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3면으로 계속)

멀티태스킹의 달인 돼야한다!

리더십저널, 소그룹 내 다양한 상황 대처하는 리더 역할 소개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인도자는 다양한 상황과 이슈들을 만나게 된다. 잘 훈련된 인도자라면 이러한 일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겠지만 아직 소그룹 운영이 익숙하지 않은 인도자들은 계속해서 소그룹 운영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하나하나 갖추게 된다.

다양한 경우들을 적절히 헤쳐 나가는 상황대처 능력은 인도자가 익숙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소그룹 인도자는 이런 역할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의 달인이 돼야 한다.

네비게이터의 닐 F. 맥브라이드는 이처럼 소그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도자가 익숙해져야 할 10가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Gatekeeper:

모든 구성원이 소그룹 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한 사람이 지나치게 주도권을 갖지 못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Encourager:

칭찬이나 또는

정감 넘치는 언어 사용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Reflector: 소그룹에서 나눠진 감정, 아이디어, 반응들을 정리해 줘야 한다.

Listener: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Clarifier: 질문을 던져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을 끌어내야 한다. 또 만약 어려운 과정이나 내용이 있다면 이들을 설명해 줘야 한다.

Standard setter: 소그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소그룹 서약이나 다른 규율들을 상기시켜 줘야 한다.

Consensus setter: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결정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눠야 한다.

Harmonizer: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이나 다툼을 중재해주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Tension reducer: 긴장감이 감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관점과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도자는 여러 가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소그룹 인도자가 위의 역할들을 동시에 다 감당하기 힘들다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구성원을 발굴해 함께 동역하는 것도 인도자가 소그룹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 같이 다양한 인도자의 역할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찾아보자.

2면
 대중주의적 복음주의의 이본
 존 스토틀 목사 소천

3면
 존 스토틀 목사의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

7면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황의영 목사(SBM 대표)

16면
 인터뷰
 피아니스트 김예자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본교의 사명과 특징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의 사명은 기독교 학교로서 신앙 공동체의 회원들에게 장래 사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토록 육성함에 있다.

1. 본교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교단(KAPC)의 직영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입니다.
2. 졸업 후 KAPC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 선교, 교수 및 기타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3. KAPC는 한국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사당동 총신대학교)와 행정교류를 체결했습니다.
4. KAPC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합동신학 대학교)와 행정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5. KAPC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와 행정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6. 캘리포니아주정부 교육국 B.P.P.E.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7. 미연방정부 교육부 USDE의 고등교육 인준기관인 ABHE의 준회원으로 정식학위를 수여합니다.
8.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을 위하여 I-20를 발행합니다.
9. 본교 졸업 후 미국 군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한인교단으로는 최고 21명이 군복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10. 본교는 Distance Education 열린 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현재 있는 곳에서 본교의 강의를 Internet Online과 교안으로 학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1. 본교는 근로봉사 장학금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2011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대학부(B.A.) Undergraduate Program

- 기독교문학사
 입학자격: 고졸, 동등학력 소지자, 세례교인

대학원(M.A., M.Div.) Graduate Program

- 기독교학석사, 목회학 석사
 입학자격:대졸,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 학력자

자격증 과정 Certificate Program

유치원 원장 자격 Preschool Director Certificate 고졸 및 동등 학력 소지자
 유치원 교사 자격 Preschool Teacher Certificate 고졸 및 동등 학력 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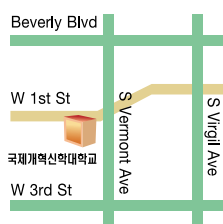
등 록 기 간 : 2011년 8월 4일 ~ 8월 19일
 개강영성수련회 : 2011년 8월 22일(월), 23일(화), 오후 7시
 개 강 : 2011년 8월 22일

유학상담: 김남을 대학원장
 입학상담: 나 벤자민 교무처장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Email : iruskapc@yahoo.com

총 장 황의영 박사 이사장 오영종 박사





시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였다(마5:5). 온유한 자란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코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에 길이 참는 것”이라고 했다(칼빈). 온유(溫柔)란 외모적인 것보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람에게 대한 선의(vincent)를 뜻한다.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마11:29).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다. 상창이 세상을 떠날 때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했다. 스승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어 보이고는 “내 이(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다시 스승은 “내 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노자는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스승은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하였고, 제자는 큰 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스승의 가르침은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이(치)는 단단하고 강하며 딱딱한 것을 부수기도 하지만 결국 부러지고 깨어지고 빠져나가서 없어지고 만다. 권력, 무력, 폭력은 강한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고 부러지고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허처럼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유의 참된 의미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부드럽지 않고 강박하고 냉정하고 물인정한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강하고 냉정하고 사나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진절할 사람, 선배에게 겸손하고 존경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 남을 친절히 섬길 줄 아는 사람,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도 잘 참고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결국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라고 하였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왕이 된다.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며 한 단체나 기관을 맡아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온유함은 겸손의 선물이며 교만은 불순종과 죄의 자식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인물인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이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 있는 물고기 잡이에 내기를 걸었다. 제일 먼저 히틀러가 권총을 뽑아 발사했다. 제일 손쉬운 강한 방법처럼 보였지만 탄환은 물고기를 맞추지 못했다. 히틀러의 실책을 본 무솔리니는 연못에 직접 들어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속에서는 물고기의 동작이 사람보다 민첩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처칠의 차례가 왔다. 처칠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다. 물고기는 당연히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 처칠에게 잡혔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어떤가? 강자였던 히틀러, 무솔리니에 대한선 사후에도 단죄의 소리가 높았지만 처칠은 국가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런던 피커딜리 공원에 동상이 세워졌다.

부드러운 가족과 예리한 면도칼 어떤 것이 강할까? 면도칼이 강한 것 같지만 면도날을 세우려면 보드보듯한 가족에 묻질려야 한다. 부드러운 가족이 강한 면도날을 마모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목사, 온유한 장로, 온유한 권사, 온유한 집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공, 큰 축복을 차지하기 바란다.

대중주의적 복음주의 이끈 존 스토틀 목사 소천

복음주의 진영, 존 스토틀 목사의 업적과 평가 밝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존 스토틀(John Stott, 1921-2011) 목사가 지난 27일 오후 영국 런던에서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0세.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9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귀가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학생”, “마틴 로이드 존스의 동역 제안에도 불구하고 성공회 소속으로 남아 교회연합을 꿈꾸었던 복음주의자”, “거창한 타이틀을 거절하고 누구에게나 ‘엥글 존’으로 불리고 싶어했던 친근하고 겸손한 목회자”,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청년의 영적 아버지로 일생을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지구촌 복음주의 진영이 그를 주목하고 그의 소천을 아쉬워하는 것은 비단 그의 사역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저서 “현대 교회와 설교”에서 제시한 ‘다리 놓기’ 설교 이론을 통해 신학과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평생 그의 사역지에서 성경적인 설교에 헌신해온 설교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크리스천티비데이(CT)는 한마디로 그를 “평생 동안 20세기 복음주의를 만든 건축가”라고 평가할 정도(John Stott Has Died: An architect of 20th-century evangelicalism shaped the faith of a generation)로, 그가 복음주의 진영에 남긴 족적은 성경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전도 중심의 공부하는 목회자의 전형적인 본을 보여준 것이다.

존 스토틀(John Robert Walmsley Stott)는 탁월한 설교가이자 복음 전도자이며, 기독교 학자이고 저술가다. 그는 20세기 후반에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세계 복음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주도했으며, 세계복음주의협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

에서 열띤 강연을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는 2007년 영국에서 열린 케직시경회(Keswick Convention)에서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그는 영국내 성공회 목회자 은퇴시설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의 삶과 사



존 스토틀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

주었다. 특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짧은 책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히 개혁파적인 입장을 잘 드러내준 고전적 가감다. 오늘날 성경을 비평적으로 대하려 하고 성경을 존중하고 그 형성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해석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성경을 더욱 더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해야 할 태도

의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며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 애쓴 그의 모습을 이제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과 기독교적인 대답”을 통해서 더욱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가 은퇴 후에 현대 목회연구소(Langham Partnership International)를 세워 2007년까

자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계획성, 지속성 특성 지녀 교회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교회사랑 동기 제공

를 창설해 그 시대를 이끈 장본인이다.

그는 평생을 영국 런던의 한 복판에 자리한 울소울즈 교회(All Souls Church)의 설교자로 사역했다. 특히, UCCF(한국의 IVF)와 국제복음주의연맹(IFES-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학생에 깊이 관여했으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음주의 선교운동 로잔회의(Lausanne Congress, 1974)의 산파역을 맡아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을 입안했다. 존 스토틀은 설교와 강연을 통해 복음에 대해 충실히 증거 했으며, 무엇보다 여러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도전에 대해 올바른 응전을 하도록 애썼다.

목회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86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

역에서 공동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여들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자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좋은 예를 남겼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써 놓은 책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학자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오전에는 그의 목사관 서재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다. 좋은 설교와 목회는 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2. 명확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중요시하면서 설교하고 강연하고 책을 쓰고 활동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여러 주석과 강해서는 그가 얼마나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본문에 충실하되 그 성경적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작업을 해

를 보여준 것이다.

3. 그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그것들과 관여하면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보인 진정한 복음주의자였다. 울소울즈교회 안에 이 문제를 돕기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아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현대 사회

지 봉사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도우려 했던 그 진정한 의도를 기억해야 한다.

4. 그는 영국 안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복음주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를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형성자(건축자)라는 말로 표현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3-0200(대 표) (323)665-0009(광고국)
Fax:(213)380-9951(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서우원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청빙

지원자격
청소년 선교에 열정이 있으며 신학 공부를 한 분
영어로 설교와 회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조
http://www.kumcabq.com/YouthDirector/JobDescription.pdf

제출서류
이력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나 교수 추천서 1부
평신도 추천서 1부

제출방법
Attention : Pastor Kee Cheon Kim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마감: 2011년 8월 31일
문의 : 김기천 목사 TEL. 505-803-7716, abqkee@gmail.com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 | | |
|----------|---------------|-------|---------|-------|
| ★ 1년 구독료 | 미국 | \$100 | 유럽 | \$190 |
| | 캐나다 | \$110 | 남미 | \$190 |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 \$190 | 아프리카 .. | \$190 |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한글 : _____ 목 사
(혹은 후원자이름) 영 어 : _____ 평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존 스토트 목사의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

존 스토트는 설교를 '두 세계 간의 다리 놓기'(bridge-building)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성경의 세계와 현대 사이에는 공간적·시간적 차이가 만든 문화적 차이로 인해 깊은 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골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문화적인 골보다 훨씬 깊고 멀다. 그러므로 설교란, 시·공간적 차이가 만든 문화적 간격을 매워주기 위해 성경 세계에서 현대 세계로 다리를 놓는 것이다.

스토트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보자', '씨 뿌리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 '청지기', '목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해한다.

그가 말한 정의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등장한다. 그것은 모든 정의가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설교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단순한 통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들리지도록 해야 함을 전제로 깔고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좋은 씨앗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좋은 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스토트의 설교 정의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가진 상반된 설교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는 성경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다. 현대보다는 성경에 관심과 연구를 둔다. 그래서 스스로 현재에서 격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



존 스토트 목사

▲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예를 들어, 인간의 존재 목적, 인생의 의미, 초월적인 것에 대해, 진정한 자유에 대해, 사랑, 성적 만족, 증오, 정욕, 복수심, 자기 부인, 죽음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주제들이다. 존 스토트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할 것을 종용한다.

▲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윤리를 다루라. 스토트는 설교자들이 흡연, 음주나 오락에 대한 문제와 같은 미시적 윤리에만 치중

가르침에도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덧붙인다.

▲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라.

그는 수많은 논쟁적인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과 어떤 입장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슈들을 설교할 때 결론을 내기보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청중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교자가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성경에 포함돼 있는 원리들과 원칙

성경세계와 현대세계 간 시공차가 만든 문화적 골 연결하는 조화/균형 설교해야

지만, 그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에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현재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곳에 집중한다. 그들은 유행하는 풍조에 민감하며, 그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설교가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그들은 현대 세계에서 성경 세계로 다리를 놓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장점을 살린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온전한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리 놓기의 실제

존 스토트가 말하는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세계에서 현대 세계로 다리 놓기를 말한다. 이 주제는 설교자가 들은 말씀을 청중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적용의 문제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윤리 문제를 외면하는 것을 경계한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르침으로써 현대 세계에 연결할 수 있음을 말한다.

▲ 사회적·정치적인 이슈들을 설교하라.

그는 설교자가 시대가 당면한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설교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설교해야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압제와 자유, 가난, 굶주림, 문맹과 질병, 환경과 오염, 자연 보호, 노동과 여가, 실업, 인권과 시민의 자유, 관료 정치에 의한 비인간화, 범죄의 증가, 범죄자들에게 대한 사회적 책임, 인종차별, 민족주의, 폭력과 혁명, 무기경쟁, 핵 공포, 세계 전쟁의 위험 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토트는 설교자가 이런 문제들을 제외시킨다면, 신앙을 생활에서 분리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현실 세계로부터 물러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그는 예수님의

들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비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또한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한 선택과 그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논쟁적인 것을 청중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설교자의 탁월한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는 성경과 현실이라는 두 세계에 대한 철저한 연구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존 스토트는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모든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할 것, 성경을 설교자의 편견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질 것 그리고 즐거운 기대를 가질 것 등을 주문한다.

그가 제시하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도 세 가지다. 섬기는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 및 영광과 비극을 제대로 이해할 것, 일간지나 주간지 그리고 텔레비전 등과 영향력 있는 미디어나 영화 등과 같은 문화적 트렌드에 관심을 가질 것, 독서 그룹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자극을 받을 뿐 아니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원그룹을 둘 것 등을 주문한다.

노르웨이 연쇄테러, 인간 죄성이 원인

(1면에서 계속)

한편 베링은 정부청사 폭탄 테러와 무차별 총격을 인정했으나 자신은 형사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자신은 "유럽을 이슬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십자군"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베링의 생각은 다른 테러주의자들의 이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자신들의 신념을 이루기 폭력에 대한 희생은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며, 나아가 자신 혹은 자신들의 동조자들의 생명 또한 희생돼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테러리스트의 이념적 배후에는 바로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 죄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

를 가지며 궁극적인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역사의 심판자인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겠다는 욕망 자체가 바로 일종의 압제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 베링과 같은 급진주의적 사상을 가진 세력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형과 같은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대안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진 유럽 대륙에 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유럽의 교회들이 부흥의 계절을 맞아만 또 다른 베링과 같은 불행한 영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대중주의적 복음주의 이끈 존 스토트 목사 소천

(2면에서 계속)

WCC 회의에 참여하며 그 문제점을 목도하다가 결국은 복음주의자들을 결집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선언(1974)을 하도록 했던 장본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스토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편 스토트 목사의 소천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스토트 목사에게서 받은 영향과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복음주의권의 큰 별이었던 스토트 목사는 또한 많은 이들의 멘토로 섬겨왔으며 이에 '영클 존'(Uncle John)이란 친밀한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성명을 통해 "복음주의 세계는 가장 위대한 대변인 중 한 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인자 중 한 명을 잃었으며 천국에 갔을 때 그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 더글러스 버드셀 의장과 린지 브라운 국제디렉터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그의 떠남에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긍지와 희망, 그리고 그 평생의 업적을 통해 힘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스토트 목사는 복음주의 신앙의 수호에 위대한 기여를 했으며, 그는 복음주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임을 언제나 믿었다"고 밝혔다.

스토트 목사가 설립했으며, 복음주의 목회자들에게 대한 교육, 훈련, 문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랭햄 파트너십 인터내셔널(Langham Partnership International)과 그 미국지부인 존 스토트 미니스트리즈(John Stott Ministries)의 대표 크리스 라이트 박사 역시 성명을 내고, "그는

모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였다.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스토트 목사의 사역을 계승했다고 평가받는 라이트 박사는 작년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에서 나온 케이프타운 조약(The Cape Town Commitment)의 초안 작성자이기도 하다.

결론으로, 목회자에게 있어 목회자 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시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확고하고 날마다 되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이다.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리처드 벅스터(Richard Baxter)는 이 물음에 대해 "목회는 양떼를 돌보는 일"이며 또 그것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부패와 금권, 세대간 계층간 이념간의 갈등, 자기중심의 가치관,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교회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조차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과 사역의 모습 속에도 때로 시대를 반영하는 혼돈과 갈등의 슬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인 목회, 결코 평신도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시대를 극복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끌어안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대안은 무엇일까, 무엇이 고민하면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좋은 목회자의 삶과 평신도 사역의 모델을 찾고 본받는 일이다. 존 스토트 목사는 바로 그 모델로서 복음주의 진영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됐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선교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교 소개 및 특전

1. 173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정통 신학교
3. 미국에서 유일한 한국어 선교학 박사학위 프로그램
4. ATS 정회원 신학교
5.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6. 특전 :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석사과정(MA),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Doctor of Ministry, Doctor of Missiology)

총장 : Dr. Ronald Manahan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11년 가을 학기

2011 Fall Modules(집중강의)

- Sept 5-Sept 9 (9월 5 - 9월 9일)
DI 804 Principles of Contextualization (상화화 원리)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Sept 12-Sept 15 (9월 12 - 9월 15일)
PM 801 Practice of Ministry Leadership(사역지도력 실행)
For D.Miss. Students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Jeffrey Gill
- Sept 10(Sat.)(9월 10일 토요일) 9am-12, 2pm-5pm & Sept 6-Sept 14 (9월 6일 - 9월 14일) 6pm-9pm
DI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om Prinsen

Online Courses(온라인 강의 : 8주간)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Aug 22-Oct 14(8월 22일 - 10월 14일)8주간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an Park
- PM 803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Oct 19-Dec 15(10월 19일 - 12월 15일)8주간
For D.Miss. Students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an Park

대표전화 : 574-372-5100, 574-377-2619
E-mail :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http://www.grace.edu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오교회)

천국 잔치집 교회

인생은 꼭 한번만 주어진 삶이라고 하여 "일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한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상처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 갇혀서 분노 허탈감 배신감 같은 쓴 뿌리를 품고 그 쓴 뿌리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경험하는 상처 가운데 가장 흔하고 깊은 상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절감이다. 사실 우리는 자리

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크고 작은 거절을 습하게 경험하며 살아간다. 거절을 당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상처의 통로가 되고 마는 것이다. 행복해야 될 가정생활이 늘 불행하고 은혜로워야 할 교회생활이 늘 불만으로 가득차고 성실해야 할 직장생활이 불안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거절의 상처, 거절감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것만은 아니다. 자식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하고 제자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한다. 사장들도 사원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한다. 예수님도 거절을 경험하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수 없이 거절을 경험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된 것이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했다. 그런데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왕은 한결같이 거절을 당한다. 심지어 초대장을 돌려 보낸 종들까지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의도적 노골적인 거절을 당한다. 생각해볼라! 왕의 초청인데 그렇게 무참하게 거절당한다. 거절당한 임금이 노하여 거절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임금은 또 사람을 보내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서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 하더니 드디어 잔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고 택함 받은 자들만

이 잔치의 진면목을 맛보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게 천국 이야기라면 이 성경말씀은 메시아를 거절했다가 어둔 지옥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천국의 초청을 거절했다가 천국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여기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다가 거절당한 임금이 하나님이라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임금이 아들인 예수님이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차 하객들에게 혼인사실과 일자를 통보해주고 그리고 다 준비되면 다시 사람들을 보내 하객들을 초대해 모셨다.

"천국은 잔치를 배운 임금과 같으니" 그랬다. 천국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기를 기다리는 왕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다. 이 잔치에 일차로 초대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천국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초대했다. 성경에 "오라"는 초청이 1900년도 더 나온데 본문에도 "오소서" 하라 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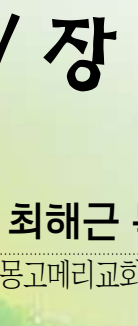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초청을 거절하며 나를 대로의 이유를 대고 있다. 일시적인 일에 쫓겨서 영원한 일을 상실하기도 하고 세상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초청,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다. 차선의 일들에 사로잡혀서 최선의 삶을 잃어버린 결과 됐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좋고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이 전부였다. 취미생활과 여흥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골프에 빠진 목사님이 있었다. 골프를 배우다 보니 너무 너무 재미있더라. 성경도 골프공으로 보이더라.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골프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시대로 인도하시는데도. 골프공이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골프채가 내게 있음이로다." 끝나고 나면 트로피 상도 있고 저녁상도 준비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천국에 골프장이 없으면 골프장 하나 건설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즉각 응답이 왔는데 "종아! 염려하지 말라! 기가 막힌 골프장들이 많이 있다. 바로 다음 주일 요일에 베드로와 네가 부킹되어 있다." 그러시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잔치 집인 교회에 초청되어 나온 사람들이다. 천국 잔치집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본받아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본인이 들어 힘이 되는 덕담을 나누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를 자랑하고 서로가 솔선수범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그런 천국의 가치관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천국 잔치집에 합당한 거룩한 은혜의 예복을 입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푸/ 른/ 초/ 장



최해근 목사
(필라, 몽고메리교회 담임)

어린 시절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닐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면 꼭 뽕방학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상급학년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에 동원(?)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보리 베는 일에 동원되어 일을 하다보면 교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묘한 차이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교실에서야 공부 잘하는 선비들이 우대받지만 보리 추수의 현장에서는 보리를 잘 베는 그런 학생들이 최고로 인정되었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칭찬도 독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현직 교사였던 자녀들은 평시에 낮을 잡고 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낫질이 어둡고 느리기가 딱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런 학생들 집에는 낫자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등치가 좋고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날이 되면 고기가 물을 만난 경우가 되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거기다가 음식까지 더 챙기게 되는 보너스 혜택을 누리면서 보리밭을 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추수가 끝나

면 보리수매가 있었고, 수매를 하고 나면 돈이 귀하던 동네에 마차 가물이 터진 눈에 비가 내려 그 틈새를 막아내는 것처럼 동네 이 집 저 집에 현금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시골동네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보리추수의 계절은 그야말로 보리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에게는 봄에 경제적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본론

성경은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맥추절과 같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관계없이 추수의 계절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주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좋은 추수의 기쁨을 더 아름답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수하는 인생” 레위기 19장 9-10절

더 따뜻하고 풍성한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추수의 계절에 추수할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추수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9:9-10은 추수할 때의 원칙을 밝힙니다. 밭모퉁이까지 다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수확을 챙기는 것을 금하셨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도록 요구 하셨습니다. 같은 추수의 원칙을 제시한 신명기 24:19-21에서는 곡식을 베고 남은 것을 밭에 남겨두고

가지 못하였을 때에 다시 밭에 돌아와서 쟁기질 말고 그냥 버려두도록 요구하셨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가지들을 다시 살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씀해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추수의 계절은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이지만, 추수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프고 쓸쓸한 계절이 될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들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추수하는 원칙을 정해 주셨

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농작물이 없는 그런 직업이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직종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명문사립대학에 입학이 허가되어서 감사하지만 그런 대학에 갈 능

력은 실력도 없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만 생각해 준다면 자라나는 자녀들이 훨씬 덜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졸업과 진급과 입학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몇몇 가진 사람과 배운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회와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추수와 관련된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레위기 25:3-7에서 안식년 규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밭에 파종하여 위의 방식으로 추수할 것이지만 제7년째에는 밭에 아무것도 파종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으므로써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주인이 다듬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를 하던 평상시의 상태에서 벗어나 포도원에 손을 대지 말고 자연 상태로 돌 것을 요구하십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맺게 된 열매는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농산물이었

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풍족하게 농산물을 줄 수 있도록 안식년에 쉬고 있는 밭을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밭에 아무런 씨앗도 뿌리지 않거나 포도나무 가지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농산물의 양은 분명히 씨앗을 뿌리고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적게 소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많은 소출을 내어서 더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양의 물질과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안식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세상 밖에서 자칫하면 더 많은 재정과 막을 것과 앞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진짜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참된 안식'의 부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세계 인구 7백1에 이르는 8억5000만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평회원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우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박사

브레노스 아이레스의 성경 운동의 창시자이자 20여년의 성경적 제자훈련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외성, 제자훈련을 주제로 연세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연세에 스페인어권 그의 열과 TV를 통하여 광범위했으며, 그의 책 '제자훈련' 출판 이후 연세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연세 Shephard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약장으로 제작하면서 영성, 교외성, 제자도 분야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적전쟁과 내적자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스위스, 독일, 태국, 대만 등 여러 세계 각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깊은 영성을 자유시키는 하나님",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의 책을 각국어로 출판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연세 Shephard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있다

에드 실보스 박사

Harvest evangelism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연세대의 가장 영향력있는 연도, 선교 전략가이다. 그는 피터 와그너, 맥 에이포드, 빌 브라이트 박사들의 지도자들에게 강령 지침을 받고 있고, 그의 모델은 세계 60여 도시에서 도시 및 기업 전체를 전도와 선교의 자원에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무도 열광하지 않기를", "기도전도", "사명의 기쁨부름", "변역" 등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평회원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버드신학대학, 예일신학대학, 프린스턴신학대학, 플러신학대학, 탈벗신학대학, APU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우수 신학대학들과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MDiv 및 DMin 학위와 학점은 미국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됩니다.

ATS는
미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와 미 문교성 (USDE)으로부터 공인된 미 연방 학력인증기관입니다.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Shephard 신학대학(원)은
신학과 영성, 성경과 신앙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하여 "For the Lord, To the World"의 기지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통역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일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로 영어와 학위프로그램 이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 학위 | 프로그램 | 학점 |
|----|----------|-----|
| 학사 | B.A.B.S. | 128 |
| 석사 | M.Div | 96 |
| 박사 | D.Min | 42 |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희 계장

Shephard 대학교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교육칼럼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우라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그동안 차세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문화와 교육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구체적인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의 개발과 커리큘럼(Curriculum)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 적합한 문화설정과 적용에 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부모들이 헌신으로 세운 교회와 신앙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고 연구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자녀들의 예배에 관하여 먼저 언급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부분이 바로 교육부 예배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확실히 알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를 체험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

아이들을 평가하고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는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

에 부모와 자녀들과 나란히 함께 앉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그들을 지어 앉는 것이 아니라 가족별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를 다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부 예배는 전통예배, 2부 예배는 자녀들을 위

가 세우고 가꾸어 온 교회와 선교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모든 한인교회들의 주일학교 정책으로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들려줄 수도 없고, 부모님들이 어려서 이민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아름답고 귀한 신앙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유치원(Kindergarten)으로부터 초등학교(Elementary)까지는 부모와 함께 예배함으로써 유대인의 자녀교육 원리대로 자녀교육의 책임이 부모에 있듯이 부모의 예배모범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듣고 배우며 훈련받은 대로 그들의 평생이 주의 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민교회가 고심해온 1세와 2세의 브릿지(Bridge)는 1.5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5세가 다음 세대 즉, 2세들을 이끌어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1.5세가 브릿지는 아닙니다.

저는 2세를 가진 부모가 바로 브

어린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예배 필수 1세와 2세의 다리역할은 2세를 둔 부모 몫

분! 질문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자신의 위치에서 보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 자녀들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속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로 자라가야 하며 반드시 예배에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 예배의 광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 드러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데 온 신경을 다 써야하고 교역자의 설교는 전혀 아이들의 마음 밭에 떨어지지 않고 그저 흘러 지나가버리고 전체적으로 소란하고 무질서한 분위기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저 흠뻑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생활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행동들이 교회만 오면 흐트러지고 말성을 부리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은 교회의 특성상 학교처럼 엄격한 규율에 의해

하면 늘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격언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자녀는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와 우리 부모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의 권한을 교회에 위탁하려고 하고 교회는 자녀들의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려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먼저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패밀리 워십(Family Worship)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주일예배

한 패밀리 워십, 3부 예배는 구도자 예배, 4부 예배는 청년예배 등으로 예배자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드리면 됩니다.

우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선입견을 지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밀리 워십이 하나의 이벤트(Event)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곧 살아가기 때문에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듯이 평생 예배를 떠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 워십이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쯤 드리는 교회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과 월은 사람의 능력과 기억의 한계를 아시고 만드신 것으로, 일주일의 라이프 사이클 패턴(Life Cycle Pattern)은 교육에 있어 주기가 일주일을 넘어가 몸이 기억을 잃고 반복적인 훈련이 되지 않아 디사이플린(Discipline)은 반드시 실패하고 습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와 2세가 나뉘어져서 1세들의 훌륭한 신앙과 헌신을 2세들에게 전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2세들이 1세에게서 배우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2세들이 1세

릿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그들이 틴에이저(Teenager)가 되기까지는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요, 그들의 생활규범이 적어도 부모 앞에서 만든 절대적인 법만 아니라 부모의 삶이 그들의 생활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연령이 될 때까지 부모의 책임 하에 예배와 헌신과 교회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치 덴마크에 북극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한풍을 막아줄 그 엄청난 전나무 숲을 키우기까지 전나무 사이사이에 포플러나무를 함께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포플러나무가 하늘로 곧게 자라는 성질 때문에 전나무들이 햇빛을 향해 곧게 자라 어느 시점에서 포플러나무를 다 베어버렸을 때, 전나무들은 여전히 하늘로 곧게 자라 덴마크의 기적의 북풍 방어 숲을 이룬 것처럼 부모가 베어질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면 그들을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우리 1세가 세운 교회의 상속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차세대연구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왜 오늘의 교회들이 구약의 안식일은 안 지키고 안식일 다음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분명히 구약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지요?

-LA에서 이 선생

A: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사람에게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그 기원이 유대적입니다. 고대의 전통에 따라 유대교에서는 항상 한 주의 제 7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히브리어 사뻐는 "쉬다, 또는 중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휴식의 날로서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것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전인적이며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 노동후의 쉼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참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쉬고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참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 주일로 성취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 날 즉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주일은 첫째 날로서 창조의 첫날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구원의 사건을 통해 죄악세상을 비추는 참 구원의 빛, 참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후 첫 날에 부활하심으로 새날 즉 주일을 제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날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일인 주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죄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구 창조를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주일은 구 창조가 죄를 인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신 창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보좌에서 구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에서 어린양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새 창조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릴 참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율법아래서 지키도록 했다면 주일은 성령의 인도로 기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날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전액장학생 선발공고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자: 석사, 박사 00명
자격: 1. 이중언어(한국어,영어)자로 토플 iBT 88~89 이상인 자
 2. 최종학교성적이 3.7 이상인 자
 3. 중생의 체험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의 강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신학대학 프로그램 | 학위 | 프로그램 | 학점 |
|-----------|----|----------|-----|
| 신학대학 프로그램 | 학사 | B.A.B.S. | 128 |
| | 석사 | M.Div | 96 |
| | 박사 | D.Min | 42 |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의 계장

쉐퍼드대학교는 ATS 외원학교입니다.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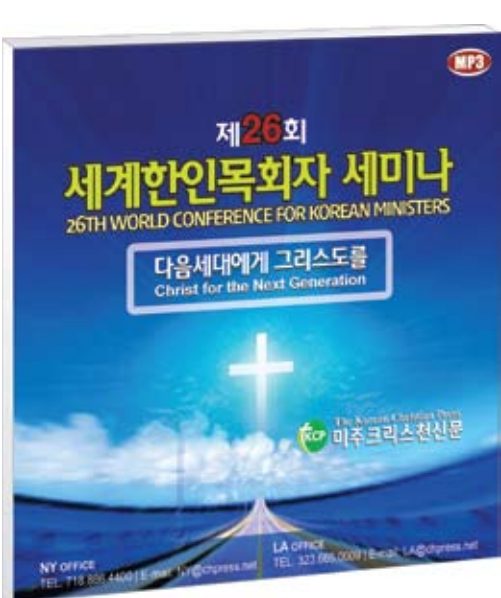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에 위협받지 않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구, 홍민기, 송규식, 김해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바티아나(Bhattiana)



파키스탄은 지형, 기후, 언어, 종교, 인종적인 면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지닌 나라이다. 파키스탄의 도처에 흩어져서 큰 종족들 간에 섞인 작은 집단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14,000명의 바티아나인들이다. 이들은 이 나라의 북동쪽 이슬라마바드의 남쪽에 거주한다. 이들은 바트나리(Bhattner)라고 불리는 인도-이란(Indo-Iranian) 계통의 언어를 사용한다. 바티아나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삶의 모습
1947년 인도대륙의 분할은 굉장한 인구의 혼란을 가져왔다. 약 3백5십만의 힌두인과 시크인(힌두교와 이슬람이 혼합된 관습을 행한다)들이 파키스탄으로

터 인도로 이주했고 약 5백만의 무슬림들이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다. 이 이동은 초기에 두 나라에 사이의 고통을 야기했고 후에 영토의 일부를 획득함으로써 더욱 심화됐다.

파키스탄 땅의 약 26%는 경작가능하고 그 대부분은 관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절반이 넘는 노동력이 농업 혹은 그에 관련된 활동에 투입되고 있고, 65% 이상의 사람들이 시골지역에 살고 있다. 생산 증대에 대해서도 보상이 거의 없는 소작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생산량은 저조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개혁과 누진세 제도가 도입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관개 기술과 비료의 개선으로 밀생산량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식량자급이 가능한 국가가 됐지만 때로는 주요산물이 부족하기도 하다.

밀이 주요작물이며 사탕수수도 널리 재배된다. 목화과 싹은 주요 수출작물이다. 가족들은 많이 있지만 유류와 우유 생산은 저조한데 이는 부적절한 사료공급과 저질의 관리 때문이다. 염소와 양은 가장 일반적인 가축이고 소, 물소, 낙타도 사육한다.

가족의 구성은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가부장중심제(Patriarchy)이고 대부분이 대가족으로 생활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으며, 가정의 잡일과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한된다. 부유한 소작농이나 지주의 가정, 도시 중산층의 가족들은 여성들을 격리(푸다, Parda: 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관습)해 보호한다. 만일 이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대개 여성들도 농장에서 일

해야 하기 때문에 푸다의 관습을 행하지 못한다.

사회구조는 카스트보다는 혈연중심적이다. 베라다리(Beradari: 남성을 통해 족보가 이어지는)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다. 남자들은 아버지의 형제들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많은 집안에서 결혼은 변함없이 늘 베라다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 혈통의 원로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평의회를 구성하며 바깥사회에서 그 혈통을 대표한다.

신앙
파키스탄의 지배적인 종교는 이슬람이다. 이는 인구의 약 97%를 차지한다. 힌두교와 기독교는 그 다음의 소수 종교집단이다. 바티아나인들은 다수에 속해서 99%가 무슬림이다. 파키스탄의 헌법은 그 나라를 이슬람국가로 정의했

으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있다.

필요한 것들
성인 파키스탄인 중 35%만이 읽고 쓸 줄 안다. 제도상으로는 5년간의 무료 초등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절반이 못되는 어린이만이 이 교육을 받고 있다. 더구나 출생율과 사망율이 높다. 정부는 여성고용촉진과 가족계획을 통해 출생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바티아나인들에게는 이들의 언어로 된 신앙성경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바티아나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선교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9.11 추모관에 십자가 설치 반대 소송

강한 종교적 신념 가진 대통령 선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대통령을 원한다.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and Religion News Service에서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는 대통령이 강력한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약간 다른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반드시 종교적 신념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을 '백인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이들 중 73%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이외의 '소수인종 기독교인'은 74%가, '주요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이들은 57%가, '가톨릭 신자'는 57%가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적 성향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공화당이라고 자신을 정의한 이들 가운데 71%는 종교적인 대통령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이라고 정의한 이들은 51%만이 종교적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최선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종교적 필요 있다고 답한 대부분은 미트 롬니나 미셸 바크만과 같은 대권주자들을 오바마 현 대통령보다 더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지지율은 미트 롬니와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할 때 43% 대 36%였으며, 미셸 바크만과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할 때는 44% 대 38%였다.

강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대통령을 원한다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지만, 오는 당장 투표를 한다면 어느 쪽에 표를 던지겠느냐는 질문에는 50%보다 약간 적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오바마 현 대통령을 선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응답자들은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대통령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후보들의 종교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내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미국인 1,012명을 선정해 무작위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95%의 정확도와 ±3%의 오차가 있다.

중국 거물경제범 '라이창성' 크리스천 돼

[미션라이프] 지난 23일 중국으로 송환된 거물경제범인 라이창성(賴昌星·53·사진)이 기독교인이

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위안화(遠華) 그룹을 설립한 라이창성은 5년간 530억 위안(한화 8조7000억 원) 어치를 밀수하고 300억 위안(4조9300 억 원) 세금을 포함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지명 수배된 뒤 99년 8월부터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2009년 10월 중화권 부흥사인 위안즈밍(甄志明) 목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정립했다.

라이창성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위안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모든 청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위안 목사는 89년 6·4 민주화운동 때 70명의 지식인들이 당국에 보내는 공개 서한의 초고를 작성한 뒤 미국으로 망명, 목회자가 됐다.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그의 전처인 쟁명나(曾明娜)는 2007년 천모시(陳摩西)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 2009년 5월 쟁씨와 자녀들은 중국으로 돌아왔다.

중국선교 전문가들은 "라이창성 형제는 2006년에도 위안 목사가 밴쿠버 집회를 인도할 때 남들의 눈을 피해 예배에 참석하는 등 복음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면서 "특히 2009년 10월 '절망 속의 은혜'라는 제목의 위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뉴욕 성공회, 동성애자 사제들에게 결혼 권고

뉴욕 주 성공회가 현재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제들에게 연인과 결혼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 주에서는 6월 이뤄진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동성 커플들의 혼인신고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 주 내 롱아일랜드 교구도 동성애자 사제들을 정식으로 결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인 뉴욕서버지가 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로렌스 프로벤자노 주교는 동성애자 사제들에게 향후 9개월간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헤어질 것을 권고했다. 그는 "교회는 항상 한 배우자와의 신실한 관계 정립 속에 살아가도록 요구해 왔다"며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상 동성애자 사제들은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결혼 관계 속에 살아가든지, 또는 헤어지든지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벤자노 주교는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성공회는 동성애에 관례를 지속하고 있는 사제들의 주교 서품을 허용하고, 사제들이 동성결혼 의식을 인도하고 축복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다.

성공회 최초의 동성애자 주교 2명도 모두 미국 성공회에서 나왔으며, 이중 한 명은 뉴욕 주에 앞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진 뉴저지 주 교구 소속으로, 이미 동성연인과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미국 성공회는 세계 성공회 내에서 동성애 포용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의원들, 한국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영국 상·하원의원 20명이 우리나라 국회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일교가 보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여야 4개당 대표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은 이번 주 도착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당이 북한인권법을 지지해 법률로 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의 구체적 내용인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영국 의회 내에서 정파를 초월해 북한 문제를 다뤄 온 정식 조직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 소속이다. 서한에는 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무소속)과 부의장 짐 도빈 하원의원(노동당)이 서명했다.

지난 2005년 발의돼 6년째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의 숙원 사업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과 6월에도 이같이 밝히고도 처리하지 않아 통과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200여개국이라는 회원 수를 가진 유엔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비롯, 미국과 일본, 유럽 의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이미 통과됐다.

미주 한인 사회와 교계에 드리는 선언문

“베리칩(Verichip)은 절대 짐승의 표(666)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향간에 나도는 베리칩에 대한 오해로 인해 교계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혼란을 주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신학대학 교수님들을 연구위원으로 연구를 하고 또한 포럼을 개최한 바 베리칩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무지한 주장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종말론을 심어 주려는 사탄의 계략으로 결론짓고 각자의 맡겨진 삶에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베리칩을 짐승의 표(666)로 보고 베리칩을 맞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잘못된 성경해석이요, 이단성 해석임을 천명합니다.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론적으로는 물론 종말론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미혹도 받지 말고, 두려움이나 염려에서도 벗어나 성도로서의 건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 영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미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베리칩에 대해 세미나를 원하시는 교회와 단체는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p>이 사 장: 신원규목사(삼성장로교회) 총무 이사: 윤성원목사(중경회장) 이 사: 정영수목사(중경회장)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이종은목사(중경회장) 양문국목사(중경회장) 양금호목사(중경회장) 회 장: 박용덕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수석부회장: 엄영민목사(OC제일장로교회) 부 회 장: 남성수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민경엽목사(나침반교회) 박상목목사(가주주님교회) 손병렬목사(남가주동성교회) 송규식목사(그레이트스웨이교회) 오세호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윤덕근목사(브릿지커뮤니티교회) 손찬우집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총 무: 백낙균목사(기독교방송문화원대표) 협동 총무: 박홍길목사(안나교회) 심상은목사(갈보리산교회) 이윤수목사(한국인선교회미주대표) 서 기: 이득환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부 서 기: 이준덕목사(OC제일장로교회) 회 계: 박한규장로(남가주빛내리교회) 부 회 계: 이지수장로(OC제일장로교회)</p> | <p>감 사: 정효영장로(은혜한인교회) 김동석장로(남가주빛내리교회) 신학분과위원장: 오아론목사(그레이트스웨이대학원) 이민목회분과위원장: 오상철목사(이민신학 연구소장) 영성분과위원장: 이호우목사(중소소교회) 장학분과위원장: 김도영장로(O.C.영락인교회) 기획분과위원장: 박찬곤목사(은혜침례교회) 교육분과위원장: 민승기목사(갈보리산생명교회) 선교분과위원장: 김기동목사(충만교회) 전도분과위원장: 주혁로목사(주님의빛교회) 언론분과위원장: 이정현목사(오렌지새생명교회) 홍보분과위원장: 박상열목사(반석감리교회) 음악분과위원장: 송규식목사(그레이트스웨이교회) 방송분과위원장: 윤우경집사(미주복음방송나운서) 복지분과위원장: 노정도목사(남가주나눔교회) 친교분과위원장: 광경동목사(New Living Church) 평신도분과위원장: 서양훈장로(은혜한인교회) 여성분과위원장: 웬디 유 (OC건강정보교육센터소장) 구제분과위원장: 최정자목사(그레이트스웨이교회) 차세대신교분과위원장: Robert전목사(은혜한인교회) 청년신교분과위원장: 더글라스 김(HYM 대표) 실버지역분과위원장: 주도진목사(부모님 교회 대표)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서문준집사(남가주사랑의병원 원장) 의료신교분과위원장: 윤재필집사(자생당 원장) 역사편찬분과위원장: 백낙균목사(기독교방송문화원 대표) 차세대연주소: 송규식목사(차세대연주소장)</p> |
|---|---|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임원 및 회원 교회 일동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황 의 영 목사
SBM대표

신앙영웅 키우기(3)

셋째구간: Echo에 의한 믿음과 변화(The believe & change of life by Echo)

(5)Repentance through Echo-말씀대로 사는 변화를 나타낸다. (6)Renewal of personality-품성과 인격이 새로워진다.

넷째구간: Echo에 따른 결과와 열매(The result & fruits on Echo)

(7)Revitalization by Echo-기쁨과 활력이 샘솟는 자리에 이른다. (8)Rewards on Echo - 말씀이 순종한데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5)적용-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감하도록 다각도로 계시하고 아울러 고귀한 영성을 부여하셨다. 이에 관해 성경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 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롬1:19)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고 인간적인 영역이 따로 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서 하나님의 영역을 차츰 넓혀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의 영역을 좁혀가게 된다. 성령충만은 곧 내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나를 다

스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에코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훈련교재를 마련하였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꾸준히 배우며 훈련하면 반드시 영성이 성숙하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효과적인 실천훈련을 위해 일상생활현장에 말씀을 일일이 적용하도록 E.M.훈련을 추구한다. E.M.은 Echoing Moment란 용어의 약자

이다. 우리의 생활현장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들이다.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 엄청난 변화를 체험한다. 그렇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 과정과 모든 결

과는 명명하신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주신다. 그러므로 E.M.훈련은 매우 값있다. 예를 들어보자.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몹시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보았을까? 예처럼 단지 먹는 데만

신경이 쓰였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생활현장에서 제지 있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과 삶을 이원화해온 잘못을 시정하고 부디 새로운 신앙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래 동안 지속해온 QT에서 발전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QT는 골방의 신앙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는다. 그러나 생활현장에 말씀을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QT보다 EM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강단의 설교에 너무나 비중을 두어왔다. 물론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듣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천 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씀 따로 내 지식과 경험 따로, 예배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은혜 따로 행동 따로 이중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리하여 성

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딤후3:5)고 교훈하신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부디 명심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자. 그리고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신앙영웅들을 키우자.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수한 훈련교재를 개발

- 1) SBM 오늘의 교회진단과 처방
- 2) 말씀의 신앙화(From Scripture to Faith)
 - (1)하나님의 말씀, 성경(The Bible, Word of God) (2)전능하신 하나님(The Creator, Almighty God) (3)나는 누구인가(Who am I?) (4)구원의 유일한 길(The Only way for Salvation) (5)구원의 보증과 삶의 변화(The Assurance for Salvation & Life Change) (6)교회는 왜 있는가(The Church, Why Exist?) (7)종말을 대비하는 신앙(The Faith for Eternal Life) (8)신앙생활의 기본원리(A Basic Principle of Christian Life)
- 3) 신앙의 생활화(From Faith to Christian Life)
 - (1)기초생활훈련을 위한 교재
 - (2)생각 바꾸기(육체의 삶, 거룩한 삶, 달려진 삶) 3권
 - (3)행동 바꾸기(복받은 삶, 감사한 삶, 화목한 삶) 3권
 - (4)영성 바꾸기(경건한 삶, 보람찬 삶, 영광된 삶) 3권
 - (5)품성개발을 위한 교재(CCD/Christian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 ①상처 입고 오염된 나
 - ②좋은 성품 가꾸기
 - ③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 외 11권

4)생활의 문화화(From Faith to Cultural Impact)-현재 집필 중

11. 실천과제-다음세대를 위해 신앙영웅을 올바르게 키우자.

성경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신6:7)을 명하고 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고 당부하고 있다. 먼저 배운 사람은 반드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1)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신앙영웅을 잘 키워야 한다. 2)신앙영웅을 키우도록 SBM이 마련한 종합적인 커리큘럼과 교재를 도입해야 한다. 3)신앙영웅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12. 모범사례-지금 다음세대를 위해 신앙영웅을 키우고 있다.

SBM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수훈련을 진행하는 모델이 있다. 그중에 한 곳을 소개한다.

1)명칭-Cornerstone Youth Mission Center(원장 이순주) web. www.cornerstonecenter.or.kr

2)목적-Christian Global Leader를 키운다(지도 양성국 목사).

3)대상-어린이, 중고등학생(학생들을 통해 인도된 학부모, 청년들)

4)방법-SBM 교재에 따라 단계적인 워크숍-discussion, 적용, E.M. 특수훈련, Planner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 수준별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14면으로 계속)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원대한 목표에 초점 맞춰야 QT보다 EM(적용)이 더 중요...차세대 신앙영웅 양육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 | | | | | | |
|---|--|--|---|--|--|--|
|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목사: 송규식 주일1부예배: 오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www.gracewave.org Tel. (714)699-0210, Fax. (714)699-0210(Cell)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or.org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Tel. (32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Tel. (21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90019 (Pico/Fairfax) |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idrock@gmail.com |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
|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10 주일3부예배: 오전 11:10 주일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다우니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5:30(월-토)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861-1004, Fax. (562)923-6705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저녁 8:0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dena CA 90248 |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받은 이민자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 (213)210-6890 / Fax (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회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터 - |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6:00(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후 1:0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EM 영아 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hurchmannan.org Tel. (818)882-9191, Fax. (818)882-9777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
|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15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lo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교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00(다문화)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다문화) 주일 4부예배: 오후 5:00(청년) 수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토)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482-8800, 4960, Fax. (916)482-5571 Web-site: www.arkmissionchurch.org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청, 장년영양예배: 오전 7:30 오전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5 영아예배: 오후 1:30 Tel. (626)339-6177, Fax. (626)967-3078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 4부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재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0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정병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7:30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명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Church: (858)571-5509 / home: (858)384-6546 2130 Ulric St., San Diego, CA 92111 myungk153@yahoo.com |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금요일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iv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 오전 10:0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891-2029 / Fax. (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Tel. (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
|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전통) 주일 4부예배: 오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사랑교: 오전 3:30(월-토) 은혜사랑교: 오전 3:30(월-토) www.gracemci.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최병수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주일 4부: 오후 1:30 영아예배: 오전 9:00, 10:30 www.inlandchurch.org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아침예배: 오전 6:3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훈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gccj.org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ch.org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4.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1) : 정보체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확신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다. 이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성경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올바른 크리스천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피조물들에 분명히 들어 있다고 기록 되어 있다(롬1:19-20).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살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사람의 세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하는 유전자들 이룬다. 그런데 단어와 단어 사이에 빈 칸이 있는 문자 정보체계와 달리 DNA 체계는 빈 칸이 없고 각 DNA가 일렬로 뻗혀 연결되어 있다.

그 대신 DNA 정보는 3개씩 순서대로 읽히게 되는데 그 3개의 DNA 문자를 코돈이라고 부른다. 생체정보(유전자)는 문자의 수가 각 책마다 다르듯이 각 생명체마다 다른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유전자 수는 약 25,0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수는 모른다.

DNA란? 염색체란?

진화론의 주장과 달리, 이 우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 외에는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언에 대한 과학적 확신은 계속 되는 칼럼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미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세포 속에는 한 가지 언어(정보)가 있다. 바로 DNA라는 것이다.

DNA란 정확하게 말하면 생체정보의 단위 요소로서 사람이 만든 문자 정보체계에서 한글의 자모 24 혹은 영어 알파벳 26가지의 단위 글자에 해당한다. 생명체 정보의 단위(알파벳)는 4가지뿐인데 그 4가지 DNA의 이름은 adenine, thymine, cytosine, 그리고 guanine이고, 첫 글자를 따서 각각 A, T, C, G라고 부른다. 각 생명마다 DNA 양이 다른데 사람 세포의 경우에는 각 세포마다 약 60억 개(30억 개 두 벌)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란?

영어나 한글이 알파벳을 한 줄로 나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체의 정보도 4가지 DNA를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알파벳 글자들이 모여 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이루듯이 일렬로 늘어선 DNA도 단어에 해당하는 codon(코돈)을 이루고 코돈들이 모여 문장에 해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화학 염색 약품에 각 DNA 덩어리가 염색이 되어 현미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일렬로 늘어선 수많은 문장들이 한 권의 독립된 책을 이루듯이 수많은 DNA(유전자)들이 모여서 염색체를 구성한다.

여기서 책과 다른 점은 책에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아무 것도 없지만 생체 정보체계인 염색체에는 문장에 해당하는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의미를 알 수 없는 DNA(문자의 알파벳)가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는 점이다. 또 각 책마다 두께(문장 수)가 다르듯이 염색체도 크기가 각각 다르다. 사람의 경우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크기 순서로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맨 마지막 23번은 성 염색체다.

게놈(Genome)이란?

여러 권의 관련 있는 책이 모여 한 벌의 책을 구성할 때 한 질이라고 부르듯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색체의 합을 게놈(genome)이라고 부른다. 소설책이든, 백과사전이든, 성경책이든 각 권마다 크기가 다르고 전체 합도 다르듯이 게놈의 크기도 생명체의 종류마다 각각 다르다. 이 정보에 따라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되고, 창조주와 아주 비슷한 정보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체계는 자음 14가지와 모음 10가지 그리고 공백 한 개를 일렬로 늘어놓은 것이다. 이 2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는 27개의 구성 요소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실명서를 기록할 수도 있고, 집에 배달되면 즉각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광고지의 문구들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전 세계 도서관과 가정들에 산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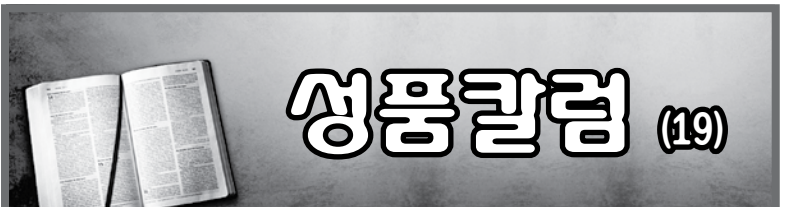
그런데 이 문자 정보체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생체 정보체계(DNA)와 놀랄 만큼 흡사한 것이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체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 체계에 대해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사람의 창조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문자로 기록하였다. 이 얼마나 신기한 조화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경의 표현이 실감나지 않는가?

부전자전(父傳子)이란 한자 표현이 있듯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한 일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쓰고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문자들은 사람이 만든 정보체계다. 그런데 이 문자 정보 체계가 수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체 정보 체계와 아주 흡사하다.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게 해 주는 성경 구절이다. "그 이상(아버지)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누구나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창조자이기도 하다(요1:3; 골1:16). 또, 아담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요1:12).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주장대로 피조물인 생명체의 DNA와 우리의 문자 체계를 보면서 성경의 주장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게 된다. 할렐루야!!!

성품칼럼 (19)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나쁜 습관 고치기-떼쓰고 짜증내는 아이

떼쓰고 짜증내는 아이, 어떻게 고칠까요? 말할 때마다 떼쓰고 징징거리고 짜증내며 말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크면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부모가 지적하여 고쳐주지 못하면 자녀는 커서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더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지도하세요.

첫째, 대체로 자녀들이 떼쓰고 짜증내며 말하는 행동의 시작은 부모에게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떼를 쓰는 행동을 야단쳐서 고치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아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위로로 받아줍니다. "친구를 칭찬해서 서운했구나? 친구가 아무리 예뻐도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주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보다 엄마와의 친밀감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지요.

또한 부정적인 태도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는 그의 의도를 파악해서 좋은 태도로 바꾸어야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엄마는 네가 짜증내면서 말하면 네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네가 짜증내지 않고 예쁘게 말하면 그때 엄마가 들어줄 거야"하고 때로는 아이가 떼쓰고 짜증내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스스로가 "아- 엄마에게는 이렇게 떼쓰고 짜증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비로소 예쁘게 말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만 하면서 짜증내는 아이에게 엄마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아이의 요구대로 양보만 해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엄마도 너하고 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청소를 마쳐야 해"라며 아이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나서 같이 놀자. 네가 도와주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해줄래?"라며 아이의 도움을 청하면 아이는 스스로 엄마를 도와줄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즐거움을 찾게 합니다. 엄마의 상황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과만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혼자서 재미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재미를 찾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는 어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심심해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퍼즐게임이나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놀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네가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음을 엄마는 믿어"하고 격려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넷째, 칭찬과 격려로 완성하세요. 좋은 성품은 결국은 칭찬과 격려로 완성됩니다. 아이들은 칭찬받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격려 받은 대로 자라갑니다. 떼쓰고 짜증내는 습관을 버리고 좋은 행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떼쓰고 짜증내고 있지 않는 순간을 포착해 놓치지 말고 칭찬해야 합니다. "네가 예뻐 있게 말하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네가 떼쓰지 않고 멋지게 앉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부모님들의 이런 노력들이 자녀에게는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 | | | | | | |
|---|--|---|---|--|---|--|
|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심리 기도회: 오후 8:00(수) 새벽 기도회: 주일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p> |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burne Rd., Levittown, PA 19057</p> | <p>벤 엘 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EM 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 기도회: 오후 8:00 대 회령 청년부: 오후 1:30 총동무: 데이비드 김(한국어) 유지, 유남부: 오전 10:00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
|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West, Box 8358, Lacey, WA 98509</p> | <p>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오전예배: 오전 10:00 주일저녁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www.kppcseattle.org Tel: (206)527-0981 /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전 4: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8:00 새벽 예배: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새벽: (501)425-5178 600 Kirby Rd., Fayetteville, AR 72711 WWW.JEJAS.COM</p> | <p>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월 아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 <p>엘파스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새벽: (915)751-438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새벽찬양: 오후 2: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
|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 예배: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목요 찬양: 저녁 8:00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 <p>큰루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 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 Tel: (253)535-6207, 531-9424 Fax: (253)536-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www.hawallchurch.org 1부 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llchurch.org</p> |
| <p>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문어)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s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7-058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 <p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지역</p> <p>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 |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장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p> |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전 11:30(월)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557-1778/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p> |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

천로역정, 성령론 강해 제자훈련교재로 유용 KAPC가주노회 여름특강, 강사 김홍만 국제신대교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KAPC 노회장 양수철 목사) 여름특강이 본 노회 교역자회 주최로 1일 오전 10시 남가주리더교회(담임 김요섭 목사)에서 김홍만 목사(국제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천로역정’과 ‘제자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김홍만 목사는 “존번년의 천로역정은 1728년에 출판됐으며 1870년대까지 100여개 언어로 번역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개혁주의는 아브라함 카이퍼 등을 대표하는 화란의 개혁주의와 존 칼빈 라인을 이어받은 영미 개혁주의가 있었다. 화란의 개혁주의는 스킨라틱한 특징이 있는 반면 성령론이 약했지만 영미개혁주의는 성령론이 강했다. 존 번연은 영미 개혁주의자로 그의 천로역정의 특징은

성령론이 강하며 마귀론에 강하기에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번연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으며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평신도들에게 쉽고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천로역정이며 이 책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유용한 교재”라며 “천로역정에는 ‘수다쟁이’, ‘게으름’, ‘허영’, ‘고집쟁이’, ‘쉽게 휘어짐’, ‘세속의 현인’ 등이 인물로 나오는데 교인들이 이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김홍만 교수가 천로역정을 연구하면서 수집한 삽화를 보여주면서 삽화에 담긴 의미를 쉽게 설명하며 강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ACTS 총장일행 환영오찬. 앞줄 왼쪽부터 김영옥 총장부인, 원종천 원장, 김영옥 총장, 장영춘 목사. 뒷줄은 뉴욕 목회자들.

ACTS 김영옥 총장일행 뉴욕방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옥, 이사장 홍성개, 이하 ACTS) 김영옥 총장일행이 뉴욕을 방문했다. 지난달 27일 플러싱 중국식당에서 가진 뉴욕목회자들과의 모임에서 김 총장은 ACTS의 정상화를 알리며 미주교계가 본교에 대해 기도와 후원을 이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모임은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김영옥 총장은 동행한 ACTS 국제교육원 원장 원종천 박사과 함께 지난 5년간의 ACTS 사태 경

과를 보고하고 현 상황도 설명했다. 소송 등 위기 끝에 지난 3월 총장으로 취임한 김영옥 총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내지 3년 간 보수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교수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이사인 장영춘 목사의 본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 후원에 대해 소개하며 ACTS 개교 당시 본교 건축기금을 조성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후원을 해온 장 목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2대 담임 박규성 목사 확정 31일 공동의회서 위임투표...97.8% 압도적 지지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2대 담임목사 청빙투표가 지난 31일 열렸다. 교인들은 후임 박규성 목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퀸즈장로교회는 7월 31일 주일 1, 2, 3부 예배를 마친 후 공동의회를 열고 세례 입교인을 대상으로 박규성 목사 담임목사의 위임투표를 실시해 97.8%의 지지로 박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선택했다. 투표에는 총 1,051명이 참가했으며 찬성 1,030표, 반대와 기권 21표를 기록했다.

장영춘 목사는 오후 4시에 열린 헌신예배에서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A+를 받았다. 큰 박수를 부탁한다”며 투표결과에 박수했다. 장 목사는 “감사할 일이다. 계속해서 박 목사를 성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인턴과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친 후 신



왼쪽부터 박규성목사, 장영춘목사

임투표를 한다고 약속했는데, 교회 밖에서 여러 이야기가 많았다”며 “이는 교회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앞으로의 임정은 1년 내에 교회 당회가 노회와 상의해 가장 효과적인 날짜를 잡아 담임목사 취임과 원로목사 추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퀸즈장로교회 2대 담임목사로 확정된 박규성 목사는 웨스터민스터신학원을 나와 퀸즈장로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당시 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브라질 서울장로교회에 부임해 6년 목회 동안 교회를 성장시켰다.



OC한인교회에서 열린 '신바람 집회'에서 황수관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닮는 것이 건강비결 OC한인교회 황수관 박사초청 '신바람 집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황수관 박사 초청 '신바람 집회'를 지난 27일 저녁 7시30분에 개최했다.

‘예수건강 신바람전도’(요삼1:2)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황수관 박사(강남중앙감리교회 장로)는 “예수 건강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마음에 그를 닮고자 하는 것이며 신바람 전도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 부여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 하는 전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겸손한 자와 선하고 착한 자일수록 잘 웃으며 밝게 살게 되며 거

만하고 교만할수록 표정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선하고 착한 마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마음, 근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신과 주변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나 자신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의 바램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날 모인 청중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이승만박사 서거46주기 추모예배 및 우남학술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이승만박사 서거46주기 추모예배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대뉴욕기념사업회(회장: 한재홍 목사)가 이승만박사 서거46주기를 맞아 지난 28일 낮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추모예배 및 우남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설교는 방지각 목사(공동회장), 세미나는 한재홍 목사가 담당했다.

동 사업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숭고한 독립정신, 나라사랑, 민족사랑, 기독교사 등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 사업회는 기념관과 동상건립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이기수 회장과 이인수 박사의 워싱턴DC 방문 시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미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코리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LA코리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윤임상 교수) 제 107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31일 저녁 7시 월서이벨극장에서 미주청소년 악물복음 방지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로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 확정을 기념하는 ‘한여름밤의 꿈’이란 또 하나의 주제로 마련이 됐는데 ‘First Meet’, ‘Love Song in Scene’, ‘Break Up’, ‘Brindist in Music’ 등 네 개의 색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또 소프라노 김희정, 클라리넷, 주디허, 조현주, 메조소프라노 Danu-

elle Marcelle Bond, 테너 추길호, 박홍섭, Robert MacNeil, 바리톤 Jay Stephenson, 권상욱 등이 ‘Once upon a dream’, ‘Lunge da lei...De'miei bollenti spiriti’, ‘Think of me’, ‘Take me as I am’, ‘Stars’, ‘Flower Song’, ‘The Prayer’ 등을 오케스트라에 맞춰 불러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으며 한 곡 한 곡 마칠 때마다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번 연주회는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를 출연자들이 함께 부른 후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월서이벨극장에서 열린 LA코리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OC교협, “베리칩은 짐승의 표 아니다” 베리칩에 관한 포럼 개최...“구원과도 무관” 입장 밝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에서는 7월 임원회와 함께 요점 회자되는 베리칩에 대한 포럼을 열고 “베리칩(Verchip)은 절대 짐승의 표(666)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정리된 내용을 공개했다.

OC 기독교교협은 베리칩에 관해 오히려 인해 교계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혼란을 주며 두려움을 주고 있음에 주목하며 일선 목사와 신학대학 교수들을 연구위원으로 연구해오던 바를 토대로 포럼을 열고 베리칩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견해를 선언한 것.

OC교협은 포럼을 통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무지한 주장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종말론을 심어주려는 사탄의 계략으로 결론짓고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맡겨진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재

림신앙으로 사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기에,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맞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잘못 된 성경해석이요, 이단성 해석이며 이는 또한 구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심iza를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이요, 종말론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교계와 성도님들은 절대로 미혹 받지 말고, 두려움이나 열려에서도 벗어나 성도로서의 건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 영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미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베리칩에 대해 세미나를 원하시는 교회와 단체는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로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 (714)401-9874, 603-9827 (정리 이성자 기자)

| | | | | | | | |
|--|--|---|--|--|--|--|--|
|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h2> | | | | | | | |
|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 예배: 오후 2:00 수요제사: 오후 3: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 482-7788, cell: (917) 349-5631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kwonchurch.org |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제사: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5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 464-2295, (917) 898-2225, Fax: (718) 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제사: 오후 8:30 금요 찬양: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Tel: (718) 361-9199, Fax: (718) 361-8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 뉴욕빌라멜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영양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새 버 기 도 회: 오전 6:00 영 양 예 배: 오전 10:30 금요제사: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718) 461-2810, Fax: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 예배: 오후 8:30 새벽(사)예배: 오후 8:30 새벽(월)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 461-7835 / CP, (718) 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 |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Tel: (718) 358-7883, 직통: (646) 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rich@yahoo.com | |
|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 639-3021, Fax: (718) 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이문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15 4부 예배: 오전 12:00 5부 찬양예배: 오후 1:30 6부 찬양예배: 오후 3:00 7부 찬양예배: 저녁 7: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새벽 6:00(월-토) Tel: (718) 762-5756, 2525, Fax: (718) 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전 2:00 새 버 기 도 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매월 3주, 3주) 8:00 Tel: (201) 342-9194(Cel), Fax: (201) 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찬 양 예 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토요 학교: 오전 10:30 새 버 기 도 회: 오전 6:0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 일 예 배: 오전 11:30 영 양 예 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 버 기 도 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 333-1757 / 목사: (516) 74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영성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저녁 8:30 새 버 기 도 회: 오전 6:00(매월 1회) Tel: (718) 321-7800, Fax: (718) 321-9394 130-30 51Ave., Flushing, NY 11354 | 어린왕자 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2:30 새 버 기 도 회: 오전 5: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 899-8309, Fax: (718) 899-8433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 |
|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 일 예 배: 오후 12:30 찬 양 예 배: 오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5:00 영 양 예 배: 오후 1:00 Tel: (718) 787-8999, bonhess@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새 버 기 도 회: 오후 5:30 수요 예배: 오후 8:20 금요 예배: 오후 8:20 Tel: (718) 310-7061, 7062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 일 예 배: 오전 1:00 영 양 예 배: 오후 2: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 310-0022(교회), Fax: (732) 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5-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org |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시(1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2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3부) NCF영양: 오후 1시 30분 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h.com |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영 양 예 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기도회: 저녁 8:00 새 버 기 도 회: 오전 5:30(월-토) Tel: (516) 277-1103, Cell: (917) 8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96-0074 Fax: (718) 896-0074 www.chpress.com | |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 양 예 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 버 기 도 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포 모 예 배: 오후 8:00 새 버 기 도 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 일 밤 예 배: 오후 7:00 Tel: (55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U-SAO PAULO-SP-BRASIL |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714호국기도회: 아침 7:40(제일) 유.초.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33, CAP.FED., B.S. A.S., ARGENTINA |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오후 8:30 714호국기도회: 아침 7:40(제일) 유.초.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TEL&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1323 Chile |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스페리쉬 설교) Tel: (595) 211-574-985, E-mail: hanimkr@hanimkr.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 |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 제 17기 실버미션스쿨 개강

뉴저지 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 이사장 김웅남 목사, 훈련원장 이영승 목사)가 주최하는 제 17기 실버미션스쿨이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주간에 걸쳐 개강된다. 뉴저지 엘리자베스한인교회(담임 소재신 목사)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이 미션스쿨의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저녁 7시부터 식사가 제공된다. 학기가 끝나면 옵션으로 11월, 뉴욕과 합동으로 단기선교훈련을 받게 된다. 현재 동 선교회 파송국은 9개국이며 25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문의: (201)843-2222, (646)642-1550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7회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오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풍아일랜드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참가대상은 9학년에서 12학년이며 참가비는 240달러(간식, 교재비 포함)

▲문의: (718)224-4477

지라니 어린이합창단 미동부 순회공연

아프리카 케냐 빈민촌 어린이들로 구성된 지라니 어린이합창단(단장 임태중 목사)의 두 번째 미동부 순회공연 '멈출 수 없는 희망의 노래'(The Unstoppable Song of Hope)가 지난 3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토) 오후 7시30분 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 ▲7일(주) 오후 6시 뉴저지 필그림교회 ▲21일(주) 오후 5시 예일대학교 바텔 채플 ▲23일(화) 오후 7시 뉴저지 포트리커뮤니티 아예음악당 ▲24일(수) 오후 7시 뉴저지 갈보리연합감리교회 ▲28일(주) 오후 7시 대동연합장

▲문의: (908)461-1178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청빙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담임목사 김재성)에서 유년주일학교를 담당 전도사를 청빙한다. 정규 신학교(M.Div)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영어 설교 및 이종언어 가능자. 이력서, 사역비전서, 추천서 각 1부를 이메일 또는 616 Prospect Ave. West Orange, NJ 07052(Attn: Rev. Jaesung Kim)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njantioch@gmail.com

50여년 곱사등 펴신 하나님 능력 찬양

백기현교수 31일 리빙스톤교회서 찬양간증 집회

50여년 곱사등을 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는 공주대 음악과 교수 백기현 권사(대전 중앙감리교회)가 뉴욕일원에서 찬양간증 순회집회를 갖고 있다.

백 권사는 지난 31일 낮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집회를 갖고 육신의 질병 속에서 무너져가는 심정으로 제 멋대로 살아온 날들을 간증했다.

2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곱사등이 된 그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성가대 지휘자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조조와 불안, 우울, 참회함 속에서 성악을 하고 교수가 됐다. 오페라를 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던 중 머리를 써서 오페라단을 창설해 1998년 '이순신'을 무대에 올려 유럽공연도 했다. 백 권사는 '오페라 이순신'은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이면에는 남이 못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다는 인정받고 싶은 열등감에서 나온 열심이 컸었

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2005년 90억의 빚을 지고 오페라단은 문을 닫게 됐다. 절망의 바다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기도하는 중에 '너는 살아있는 나보다 죽은 이순신을 더 좋아한다'는 질책을 받았다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좋아하지 말고 더 높게 두지 말라고 백 권사는 강조했다.

그리고 참석한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꿈은 등이 펴지고 30년간 앓아온 간염 등 온갖 질병을 다 고침 받았다.

백기현 교수는 서울음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비엔나 국립음대와 이태리 아르츠아카데미를 수학했으며 국무총리상, 화관문화훈장 수상하고 2005년 6월 이후 한국 800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백기현 교수가 리빙스톤교회에서 간증하고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자”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 2차 기도회



할렐루야복음화대회 2차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선관위 모임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총회 10월24일·9월5일 후보등록마감

뉴욕교협 선관위 선거일정 및 활동원칙 발표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교협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갖고 선거일정 및 활동원칙을 발표했다.

전 선관위원장 황동의 목사의 사임에 따라 새로 임명된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교협서기)의 주wo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총회를 앞두고 치러질 정 부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8월 1일: 선거공고 △8월 29일: 등록시작 △9월 5일: 등록마감 △9월 6-23일: 서류심사 △9월 23일: 후보확정공고 △9월 24일: 선거홍보 개시 △10월 17일: 후보 공개토론회(단일후보 시 관공토론) △10월 24일: 총회.

또 선관위 활동원칙은 △절저히 교협 선관위 회칙을 준수한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서류심사를 받되 선관위원장의 재가를 받는다 △모든 업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선관위 모든 업무의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일한다 등이다.

선거관위의 세칙에 따라 임명된 10명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윤준 목사, 부서기 장용선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 증경회장 한재홍 이병홍 목사, 집행위원 이대연 장로, 특별분과 이성현 목사, 교협이사 손석완 장로. 이날 이대연 장로와 이성현 목사는 불참했다.

한편 이어진 법규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 회의에서는 선관위 세칙 등 모든 운영에 관한 세칙은 모범 제 11장 (부칙)제 26조에 따라 집행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법해석이 있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는 정기총회에서 세칙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할렐루야복음화대회와 지도자 컨퍼런스를 위한 2차 기도회를 갖고 합심기도와 함께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 29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이희선 목사(할렐루야준비위원장) 인도로 기도 순석완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김연규 목사(지도자컨퍼런스 집행위원장), 설교 김중훈 목사(예배분과위원장), 특별기도, 광고 허윤준 목사(총무), 축도 김원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중훈 목사는 에스겔서 37장 1-10절을 본문으로 "마른 뼈의 모습이 현재 미국의 모습 일 수 있다"며, "선민의식과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백성처럼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린 미국에 한인디아스포라들을 보내TU서 이 시대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번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통해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한인교회와 미국교회,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이성현 목사 인

도로 미국과 조국을 위해, 안승백 목사 인도로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해, 박태규 목사 인도로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위해(성인, 청소년, 어린이) 제목으로 각각 통성기도 했다.

예배 후에는 할렐루야대회 분과위원장 및 분담업무를 발표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맞췄다"며 "예배와 관계없는 순서는 미리 30분 동안 마치는 등 예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도자컨퍼런스는 말씀 중심의 강사를 모셨으며 뉴욕목회자들의 친교와 단합에 중점을 두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할렐루야복음화대회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그리스도!" 주제 아래 9월 9일부터 사흘간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며 청소년집회는 "Evangelism in Schools" 주제로 10월 7일부터 사흘간 폴 코디 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어린이대회는 성인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를 강사로 열린다.

한편 교협은 이민목회 노하우나 논문, 수필 등을 모은 '뉴욕목회수기' 원고를 모집한다. 책 출판비는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가 후원하며 1, 2, 3 등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유원정 기자)



북미원주민 연합선교 파송기도회에서 김해택 목사가 안전수칙을 전하고 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에 340명... 2세가 80%

30일, 2011년 북미원주민 연합선교 파송기도회

2011년 북미 원주민 연합선교 파송기도회가 지난 30일 저녁 뉴욕충신교회(담임 김해택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도 6년째 진행되고 있는 북미원주민 연합선교회는 2011년에는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워싱턴DC 베다니장로교회와 광주 아델리안교회(담임 정광희 목사) 등 30개 교회에서 총 340명이 선교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260명에서 85명이 증가한 것이다.

선교 팀들은 춤, 연극, 노래, 북춤 등의 다양한 문화선교를 통해 원주민들에게 다가가게 된다. 또 각 순회는 문화교류와 음식사역팀이 있어 북미원주민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 음식을 소개한다.

선교는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지역

의 8개 북미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진행된다. 미네소타 팀은 31일 오후 6시, 위스콘신 팀은 8월 1일 오전 6시 각각 출발했으며 8월 6일 뉴욕으로 귀환한다.

이 북미원주민 선교회는 2세가 주도하고 1세대들이 돕는, 세대를 극복하는 화합형 선교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2세 참가자가 80%이며 1세 참가자는 20%정도이다.

이날 설교는 김재열 목사(뉴욕중부교회 담임)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또 1997년부터 북미원주민 선교를 해온 김동승 선교사가 참석해 5분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38회기 정, 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38회기를 이끌어 나갈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 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등록기일 : 2011년 8월 29일 ~ 9월 5일(월) 오후 5시까지
- 등록장소 :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 사무실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45
Tel. 718.358.0074, Fax 718.321.0105

제11조(후보자격)

- 회장, 목사부회장:
 1. 본회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회비체납이 없는 자
 2.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3. 뉴욕지역 담임목사 5년 이상 된 자
 4. 본회, 임직원 집행위원을 역임한 자
 5.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펠신도 부회장: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함.
- 감사 후보는 이력서만 제출

제12조(입후보등록수비서류):

1. 등록원서 1부(교협소정양식)
 2. 소속 교단장 추천서 1부
 3. 교회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4.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5. 이력서 1통(사진부착)
- 선관위원: 1. 운전면허증 사본, 2. 여권 사본

제13조(소견발표):

- 6. 입후보신청서 1부
 - 7. 공탁금 \$1,000 납입증명서 1부
 - 8. 여권용 사진 1매
 - 9. 목사안수증명서(복사본)
- 제13조(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직전총회에서 3부 이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1회 공개토론회정

제14조(선거운동)

- 본 선거관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고 및 홍보행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 *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시 본회에서 제명한다.

2011 지도자 컨퍼런스

- 참가자격 : 목사, 사모, 장로 등 교계지도자
- 일시 : 주후 2011년 9월 12일(월) - 9월 14일(수)
- 장소 : Spruce Lake Retreat
- 강사 : 박희민 목사, 김영길 목사, 서임중 목사, 손병렬 목사 등 다수
- 등록비 : \$20.00
- 인원 : 선착순 150명
- 기타 : 모든 숙박 무료 제공
- 접수 : 9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부터
- 기타 문의사항 : 총무 허윤준 목사(718-637-1470) / 진행위원장 김연규 목사(917-558-7435)

*http://nyckcg.org/ 나타나는 '컨퍼런스 등록 배너'를 클릭해서서 로그인 하신후에 등록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회원교회의 지도자들은 2순위가 되어 추후 연락드립니다.

*당일 현장 접수는 숙박관게로 받지 않으며 사전 등록하신 분들도 꼭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윤준 목사
서기 현영갑 목사 준비위원장 양승호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Fax (718)321-0105
E-mail : nyckcg@gmail.com / www.nyckcg.org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 450명 초청

사랑의빛선교교회 2011선교축제, 음악회, 간증, 장터, 의료봉사 등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최혁 목사)는 지난 30일 오후 6시30분 ‘나는 선교사다’라는 주제아래 ‘2011 선교축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본 교회 박영도 김진선의 사회로 시작된 열린음악회는 교회와의 만남, 클래식과의 만남, 재즈와의 만남, 열방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등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교회와의 만남에서는 하우스밴드와 본 교회 연합성가대 찬양, 본 교회 에디터 위싱턴스팀의 워십댄스로 이어졌고 클래식과의 만남에선 테너 이종현과 쏘로로스 중창단이 나서 깊이 있는 찬양을 선사해 청중들로부터 앙코르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어 재즈와의 만남에선 Musicians Institute 출신 트루워시퍼스의 격조 높은 공연이 선보였으며 열방과의 만남에선 에디오피안교회와 국악 사물놀이 팀이 나서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이 선사



사랑의빛 선교교회에서 열린 ‘나는 선교사다’ 행사 모습

됐다. 마지막 섹션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선 이상혁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40분부터 본 교회 파킹랏에서는 ‘행복의 장터’라는 제목으로 먹거리 장터를 열어 식사를 제공했으며, 세계의료선교회와 함께 치과, 초음파, 유방암검사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

족사진 촬영, 그리고 이민법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번 선교축제에는 중국, 인도, 몽



코너스톤 교회에서 간증 찬양 콘서트에서 율형주 장로가 찬양하고 있다

율형주 장로 간증찬양 콘서트

코너스톤교회... ‘세시봉에서 지금까지’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지난 31일 저녁 6시30분 율형주 장로를 초청, ‘세시봉에서 지금까지’ 간증찬양 콘서트를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코너스톤 콰이어와 찬양팀의 특송에 이어 이종용 목사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날 율형주 장로는 70년대 상영됐던 영화 ‘어제 내린비’의 주제곡을 비롯, ‘조개껍질 묶어’, ‘두개의 작은 별’ 등을 불러 이날 모인 4, 50대 청중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며 그가 한 참 인기가수로 활동했던 7, 80년대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또 6촌인 고 운동주 시인의 ‘별헤는 밤’을 낭송하며 운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기도 했다.

골, 예맨, 스리랑카 등에서 사역하다 안식년을 맞이해 미국에 체류 중인 선교사 및 선교단체 스태프 등 450여 명이 초청됐다. 또한 7월 한 달간 온성도들이 기도한 미전도 국가를 소개하는 알뜰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7월 한 달을 선교축제의 기간으로 정하고 약 60여개의 미전도 국가를 각 구역별로 입양해 매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선교를 위한 달로 지냈다.

금요일에는 오윤태 목사, 박태수 선교사(미국CCC 국제본부개척선교팀), 육셀 선교사(터키), 이누가 선교사(C국), 이상혁 선교사(인디언-호피/나바호족)가 간증을, 토요일에는 김인수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육셀 선교사,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가 강사로 나서 미전도 그룹강의를 인도했으며 주일예배는 미션주일로 지정하고 최혁 담임목사가 설교를 했다. (박준호 기자)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운동주를 일컬어 민족시인, 저항시인이라 정의를 내렸지만 사실 운동주는 신앙시인이었다. 운동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었으며 그 믿음은 그의 시속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이다. 비가 내릴 때 우산으로 비를 피한다. 그러나 그 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비이고 우산이 명예와 재물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라면 우산을 접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비에 흠뻑 젖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비를 흠뻑 맞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이날 말씀을 전한 하덕규 목사는 “지난해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7개월간 이어온 치료의 과정 속에서 다가온 절망,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나갈 수 있다.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힘 있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하덕규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과 간증 집회

토랜스 조은교회

토랜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는 하덕규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과 간증 집회를 지난 29일 저녁 8시에 개최했다.

김바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하덕규 목사는 시편 133편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는 “교회는 울분보다 은혜가 넘치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피난처이자 참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는 곳”

이라 말했다. 하 목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영원 전부터 공동체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심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지음 받은 우리들 역시 공동체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이 될 때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공동체를 바라볼 때 매력을 느끼게 된다. 교회들이 주안에서 하나님됨을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사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교협 목회자자녀장학금 마련 1일식당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가 작은 교회 목회자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해 1일 식당을 개최한다. 8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이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LA 지역은 다호 갈비(3986 Wilshire Blvd., L.A., CA 90010)이며 그 외 외곽지역은 북창동 순두부(세리토스, 풀러튼, 가든 그로브, 엘바인, 로렌하이츠, 밸리)이다(11년 광고 참조).

▲문의: (626)524-4730, (213)381-7755 백지영목사 (213)381-7755

라파선교회 오행침 침술강의

라파선교회(회장 오덕상 장로)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오행침 침술 강의 제 18기를 생수의강교회(2865 W. 7th St, LA)에서 개최한다. 본 강의는 오는 8월 25일(목) 개강해 11월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9시40분까지 총 12주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오덕상 장로(오덕상한의원 원장/한의학 박사). 등록비는 250달러(교재 및 침 구입비).

▲문의: (213)703-0920

교육전도사 청빙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담임 김기천 목사)는 청소년 선교에 열정 있는 파타인 교육전도사를 초빙한다. 모집기간은 8월31일까지이며 이력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추천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87113)

▲문의: (505)803-7716/ abqkee@gmail.com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에서 2011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대학부(기독교신학)와 대학원(기독교학 석사, 목회학석사)과정의 학생을 모집하며 자격증 과정으로는 유치원 원장 자격과 교사자격과정을 모집한다. 등록마감은 8월9일까지이며 8월22일-23일 영성수련회를 시작으로 개강하게 된다.

▲ 문의: (213)381-0081 / www.iruniv.org

그리스 선교회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그리스 선교회대학원에서 2011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석사과정(MA)과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등을 모집하며 온라인 강의도 준비된다. 한편 2011년 집중강의는 9월5일-9일, 9월12일-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강의는 교차문화 의사소통 8월22일-10월14일, 복음중심사역 10월19일-12월15일까지 진행된다. www.grace.edu

▲ 문의: (574)372-5100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전액 장학생 선발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자격은 이종언 어자로 토플 iBT 88-89이상, 최종학교 성적 3.7이상이며 중생의 체험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에 한한다. 현재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는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의 강의가 진행 중에 있다.

▲ 문의: (213)481-1313 / www.shepherduniversity.edu



▶토랜스조은 교회에서 열린 찬양과 간증 집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2011년 광복절 제66주년 기념 연합 감사예배

- 강 사: 이만열 교수 (성서한국 공동대표,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노예로부터 해방 받은 자의 과제’
- 일 시: 2011년 8월 14일 (주일) 오후 5시
- 장 소: **충현선교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4565 W. Colorado Blvd., Los Angeles, CA 90039 (818) 549-9191 www.choonghyun.org
- 특별출연: 미주복음방송선교합창단, 변덕수사물놀이패

이만열교수 초청 목회자를 위한 특별강연회

“8.15 해방의 현재적 의의”

- 강 사: 이만열 교수(성서한국 공동대표,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 일 시: 2011년 8월 15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JJ Grand Hotel** (213) 383-3000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 예 약: 8월 11일까지 사전 예약 하신 분들만 참가할 수 있음
- 연 락: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213) 255-1725

일시: August 8~11(월-목), 2011 (4일간) 11:00am~3:00pm

도내이션 10불

ONE DAY RESTAURANT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마련 1일 식당

장 소: L.A.지역 - 다호 갈비
(Tahoe Galbi Restaurant) Tel. (213)365-9000
주 소: 3986 Wilshire Blvd., L.A., CA 90010 (Wilshire Blvd. & Wilton Pl.)

메 뉴: 육개장, 갈비탕, 비빔밥, 냉면, 된장찌개

장 소: L.A.외곽지역 - 북창동순두부 (BCD Tofu House)

세리토스 지역 Cerritos (South + Pioneer)
11818 South St, Cerritos, CA 90703 / 562-809-8098

풀러튼 지역 Fullerton (Malvern + Beach)
53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 714-521-4500

가든 그로브 지역 Garden Grove (Garden Grove + Gilbert)
952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714-636-5599

얼바인 지역 Irvine (Alton Pkwy + Jamboree)
2700 Alton Parkway #135, Irvine, CA 92606 / 949-553-6465

로렌하이츠 지역 Rowland Heights (Fullerton + Colima)
1731 Fullerton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 626-964-7073

밸리 지역 Valley (Saticoy + Reseda)
18044 Saticoy St, Reseda, CA 91355 / 818-342-3535

메 뉴: 순두부

연 락: 준비위원장 손수용장로 (626)524-4730
백지영목사 (213)381-7755

8월 29일-9월 2일 예정합동 세계선교대회

GMS, "선교한국 100년 돌아보고 다음 100년 준비"

국내 최대 선교사 파송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이사장 허귀호 목사)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안산 동산교회(김인중 목사)에서 대규모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GMS는 29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대회의 열개와 의미를 공개했다. 허귀호 목사는 "장로교 창립 100년이 되는

2012년을 앞두고 선교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대회는 선교 한국의 100년을 돌아보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MS는 예정 합동 교단 선교회로 현재 100개국에서 2133명의 선교사가 활동 중이다. 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체 한국 선교사들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주로 교회 개척과 신학교 설립 등의 선교사역을 해 왔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가 3500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GMS는 이번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선교사 파송 교회 확대, 전문인 선교 증대 등 선교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목사 중심의 선교사 구조를 전환해 변화하는 세계 선교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대회 준비위원장 김재호 목사는 "세계교회와 함께 가는 선교로 도약하

고자 한다"며 "500개 교회에서 1000개 교회로 선교사 파송 교회를 늘리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 훈련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대회는 국내외 선교 관계자 1000여명을 비롯해 교단 산하 3000명의 성도들이 참석한다. GMS는 이번 선교대회를 선교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스티브 더글라스 국제CCC 총재가 방한해 '기독교의 흐름과 미래 대응'을 주제로 사흘간 강연하며 정필도(부산 수영로교회), 김자연(서울 왕성교회), 김인중(안산 동산교회),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목사 등이 나와 설교한다.

"복음주의 4인방" 하용조목사 소천

'종합방'으로 불리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목회와 선교 열정을 불태운 하용조 은누리교회(65·사진) 목사가 2일 오전 8시 40분 별세했다.

하 목사는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옮겨져 2차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옮겨졌으나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하 목사는 고 옥한흠 목사,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목사,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목사 등과 함께 교계에서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며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과 해외선



교의 지평을 넓혀왔다. 두란노서원을 통한 출판·문화·목회와 신학 콘텐츠 제공, 성도들의 신앙을 체계화하는 일대일 양육 전파, 맞춤형도전회, 해외 문화전도집회인 러브 소나타 등 한국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청년을 통한 제2의 선교한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차세대 사역에 남다른 의지를 나타냈다.

하 목사는 1946년 9월20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하대의 장로와 김선일 권사의 3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형은 하용삼 수산교회 목사, 남동생은 하용인(스데반) 선교사이다. 유족으로 이형기 사모와 슬하에 성석, 성지 등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장례는 3일장 교회장으로 서울 서빙고동 은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장지는 강원도 문막 은누리동산이다.

"사랑과행복나눔 관련 소모적 논란 자제를"

조용기 목사, 재단관련 서명운동에 입장 피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지난 31일 최근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랑과행복나눔재단 관련 서명운동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조 목사는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4부 예배 설교에서 "제가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당회에서 500억원을 기금으로 주었다"며 "그 돈은 내 돈도 교회 돈도 아닌 재단 돈"이라고 말했다. 재단과 교회가 법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소모적 논란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 목사는 "나는 절대 아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천막 치고 가마나 깔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50년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교회 돈을 빼먹으려 한다면 미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후임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며 성도들의 적극 지지를 부탁

하기도 했다. 조 목사는 "저와 이영훈 목사 사이에 아무리 썰기를 박으려 해도 불가능하다"며 "하나님이 제 뒤를 이어 이 목사를 당회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적으로 이 목사와 함께 계신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이 목사의 뒤를 밀고 받들어 한국과 세계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온 세계에 나아가 주님을 위한 더 큰 그릇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회수호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4일부터 장로들을 대상으로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의 2기 선교사역을 지지하고 후원할 친교모임 성격의 선교회 조직이 1일 결성됐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기하성 서대문총회(총회장 박성배 목사) 소속 목회자 150여명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서 모임을 갖고 '기하성 연합 영산선교회'를 발족했다.

기하성 연합 영산선교회는 설립 취지문에서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하성 서대문 등 양 교단 총재인 조용기 원로목사를 총회 차원에서 보좌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교단 목회자들은 조 목사의 제2기 선교사역을 적극 돕는 한편 '하나의 기하성'을 향한 움직임을 보다 구체화하게 됐다. 지난 5월 여의도순복음총회는 기하성 서대문총회와의 통합을 결의하고 서대문총회의 부채와 소송 문제 등을 재심의 한 뒤 임시총회를 열어 '하나의 기하성'을 만들기로 했다.

기구들에 수해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사진 조작' 등으로 물난리 피해를 과장되게 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엔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황해남도 수해 피해 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했고, 비축했던 10만여명분의 구호품을 긴급 분배할 예정이다.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오늘(25일) 북한에 미리 비치해 둔 응급구호품을 분배해달라며 공식으로 수해 지원요청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단은 유엔 기구들과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참여했다. 유니세프는 지난달 29일 "수해에 대비해 북한 10개교 이상의 창고에 긴급구호품 10만여명분을 비치해 두고 긴급 실사파견단도 조직했지만 북측의 지원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알린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홍수에도 지원을 거부하다 한달만에 공식 지원을 요청했다.

"하나님 방법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국교회 청장년 위한 2011 금식기도대성회 3만명 참석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국교회 청장년들이 확고한 기독교인 정체성을 갖고 살기로 다짐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도' 약속을 자신의 약속으로 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1일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에서 열린 '2011 한국교회 청장년 위한 금식기도대성회'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담금질한 집회였다. 교파를 초월해 모인 4000여명의 청장년 신자들은 이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와 찬양, 말씀에 전념했다.

개회설교를 맡은 주성민 일산금

산교회 목사는 '에브라임의 축복'(창41:50-52)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혜로운 성도는 고통을 느낀세로 날려 보내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얻는다"며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 온다"고 강조했다.

3일까지 진행된 성회는 연인원 3만명이 참여한 대형 집회다. 교회의 하리인 20-50대 신자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다. 예배와 찬양 콘서트, 간증, 성령집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강석(분당 세이렌교회) 김병삼(분당 만나교회) 이태근(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이영훈(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15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사명자가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3일 오전 설교했다.

조용기 목사 2기사역 적극지원 '기하성 연합 영산선교회' 발족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

북한, 유엔 통해 수해지원 공식요청

북한 당국이 25일 평양 주재 유엔

크리스천이 죽기 전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천국에서 만나요" 43.6% 최다

"천국에서 보자... 사랑해... 고마워... 하나님 믿어라... 미안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라... 하늘에서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크리스천은 한결같이 애절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이 같은 말을 남긴다. 크리스천은 왜 이토록 천국을 갈망할까. 영원한 안식처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나려는 크리스천이 남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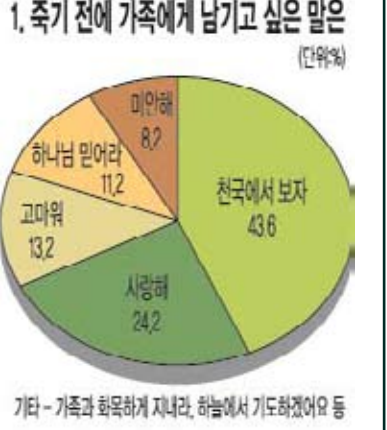
SNS 미디어는 최근 기독교 전문 잡지 '행킹'(발행인 성통렬·계간) 창간호에서 서울 종로와 노원구, 경기도 용인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주시 등 전국 교인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천국에서 보자'가 43.6%로 1위를 차지했다. '사랑해'(24.2%), '고마워'(13.2%), '하나님 믿어라'(11.2%)가 뒤를 이었다.

SNS 미디어 측은 "이번 설문 결과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마지막 유언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할 신구약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잡언과 시편'이라고 답했다. 필사하고 싶은 성경 역시 '잡언과 시편'을 꼽았다. 교회는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보다는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선호했다. '죽기 전에 다니고 싶은 교회'를 묻는 질문에 '작은 교회'(20.6%), '동네교회'(17.4%), '오래된 교회'(14.6%), '유명교회'(11.6%), '대형교회'(10.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꼭 한번 더 듣고 싶은 찬송가'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21.2%), '이 기쁜 소식을'(17.0%), '이 세상 끝까지'(14.4%),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11.2%), '저 높고 푸른 하늘

과'(10.6%),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시' 등을 적었다.

'회개하고 싶은 죄'에 대해서는 '욕심'(25.2%), '원망'(20.8%), '회'(17.4%), '불신'(12.2%), '도둑'(4.2%), '음란' 등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연예인으로 소녀시대, 정지인 등은 박근혜 의원, 스포츠인에는 김연아 선수가 뽑혔다.



제6회 '한국교회연합과일치상' 수상자 선정

손인웅 목사·노희석 목사·이재천 사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오병렬 목사)는 제6회 맞이하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이래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용완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제6회 수상자는 대외부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담임), 대내부 노희석 목사(명일성결교회 담임), 평신도부 이재천 사장(CBS기독교방송)이다.

대외부 수상자 손인웅 목사는 한국교회회방방사단을 통해 한국교회와 봉사와 섬김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회를 대표해 한국교회 개혁정신을 주도하며 연합과 일치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대내부 수상자 노희석 목사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대표회장 역할을 맡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했으며 성령운동을 통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의 장을 확장한 2007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성회, 2010천만인성령대성회의 주도적 사역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평신도부 수상자 이재천 사장은 한국교회 대표적 방송사인 CBS기독교방송 사장으로 방송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전반과 소통하는 언론상을 구축했으며, 개혁적 보도로 한국교회 위상을 제고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의 장을 확장시킨 공로로 선정됐다.

24시간 영입

뉴욕곰탕 스텝가게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허튼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태권도, 검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Yoo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인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인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인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MI MOVEMENT

<월간> 미주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nlovely@yahoo.com

선교지 소식



아프리카 8개국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주의 일이 크건 작건 어디나 나름대로 난관과 도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큰 탈 없이 아프리카 8개국의 EAPTC 선교사역들은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선교편지에서는 여러분과 새로운 몇 가지 변화된 상황들에 대하여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신생국가 남부 수단과 수단 선교

지난 7월 9일자로 드디어 남부 수단은 북부 수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였고 바야흐로 아프리카의 54째 국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독립을 앞두고 5월 20일을 기점으로 북부 수단과 남부 수단 사이에 대립하여 위치한 황금 유전 Abeyi 지역을 놓고 출혈사태가 있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투입된 UN군의 중개로 인해 현재 서로 간에 비무장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부 수단에 속해있는 Nuba 산악 지역에서는 여전히 Omar Al-Bashir 대통령의 따르는 의용군들이 조장하는 대량 학살과 약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Darfur 학살의 역사가 이제는 Nuba 지역에서 되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EAPTC 선교회는 현재 남부 수단에 케냐인 선교사인 Edward Kamau 목사님을 지난 2004년에 파송한 이래 지금까지 교회개척, 사역자 훈련원 사역, 제자훈련, 라디오 방송설교 등의 역동적인 수단 선교를 수도 Juba를 중심으로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EAPTC 수단 선교회와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수단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라위 선교

말라위 사역자훈련원의 담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담장 공사를 위해 4,700달러 특별헌금을 모금해 보내주신 저의 모교인 오랄로버트 대학교 학생회에 감사드립니다.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공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라위의 Mchinji 교회는 대중 전도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과 함께 또 하나의 지교회인 Mponda 지역에 얼마전 개척하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잠비크 선교

인구 2천1백만, 수도는 Maputo인 남동부 아프리카의 나라인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쓰는 아프리카의 5개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년 1월초 EAPTC 말라위 선교회가 국경을 넘어 Bene 지역에 개척한 모잠비크의 첫 교회는 이미 100여명의 성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듯 타문화권 제자훈련의 번식의 원리에 힘입어 15년전 케냐에서 시작한 EAPTC 선교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8개 나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자선, 자치, 자립해가는 아프리카 선교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선교 초창기부터의 비전이고 바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Bene 지역사회의 추장(Chief)이 교회 건축 부지를 헌납하여 필요한 토지 양도 절차를 걸친 후에 성도들은 자체적으로 건축을 위한 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모잠비크 선교회의 등록이 이루어져서 모잠비크 선교가 더욱 활성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외 행사 및 기도 제목들

1. EAPTC 목회자/선교사들, 교회들, 학교들 및 그의 산하 기관들을 위해(현지인 리더십 중심의 팀워크와 성장을 위해)
2. 진규, 현규가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3. 동정: 8/25-8/29 탄자니아 Moshi 교회 지도자 및 교사 세미나(이석로/송재은 선교사, Nicholas Alalia 목사, Olivia Jayo 선생 인도)
4. 지교회들의 건축 보조금 모금을 위해(Matching Fund로 건축의 절반을 보조해오고 있습니다.)
5. Nairobi 모델 유지원 건축헌금 모금을 위해

매 분기 선교편지를 쓸 때마다, 바쁘게 살며 사역할 때는 미처 몰랐던 성령님의 발자취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통하여 지난 분기도 아프리카 땅에서 신실하게 일해오신 주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고 때가 되어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시면 이러한 열매들을 더욱 자세히 그리고 실감나게 목격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 아프리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삶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6개라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아프리카 땅을 위해 뿌리는 헌신의 노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를 약속해주고 계시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시편126:6).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를 품는 이석로, 송재은, 진규, 현규 드립니다.



브라질 동북부 베르남부고 선교여행기 (5)

“우리는 하나였다”

신속자 선교사

이제 마음속에 오히려 현지 목사들의 각박한 가난이 마음에 부딪혀 왔다. 언젠가는 그들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다가 무심코 보이는 앞쪽에 대 여섯 살 남짓한 남자가 이가 엄마인지 누나인지 모를 여자의 품속을 파고들면서 춤추고 무어라 하는 것 같아 유심히 보았다.

여자는 자신의 웃옷을 벗어 아이에게 입혀주는데 보니까 자신은 브레이지어 같은 훗걸 유방 싸게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 팔을 움츠리며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추위를 견디느라 철없는 아이는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웃옷을 입고 좋아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우리의 모습처럼 가슴이 뭉클했다.

성령님은 마음을 두드렸고 즉각 순종! 가방을 열고 가져온 옷 중에 앞에 단추가 달린 원피스를 꺼내 건네 주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입고는 고마워하며 동행인 남자와 아이와 함께 방금 도착한 버스로 달려간다. 얼마나 기쁘지... 무엇이든 자신의 손에서 놓을 때 그때가 참 자유한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아주 조금씩 닮아 가는 것이 아닐까?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주일 아침이었다. 까루아루 베데스다 교회를 가기위해 남편 목사님을 통해 집사 임명을 받은 김 집사님의 차에 동승하고 가면서 한 시간 가량의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집사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머지않아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의 꿈을 이루어 가는 까루아루교회 김 장로님 부부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북부 선교여행 중에 김치와 멋진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이곳 까루아루 베데스다 교회는 우리 부부에게는 고향의 불과 같은 아늑한 휴식을 안겨주며 피곤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쉼터와 같이 느껴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김대성 장로님 부부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키우고 계심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선교에 진실한 동역자인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내 김봉숙 권사님의 정금 같은 믿음이 반짝이는 이곳에도 기적의 교회당이 지어질 것이다. 그해미야의 성전건축처럼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자립으로 건축하겠다는 결심을 그 누가 막으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못말리는 사람 중 하나인 그녀가 어떻게 필자의 철수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하얀 봉투를 건네며 “사모님! 이것은 선교

헌금이 아니고요, 철수에 드리는 것이요 꼭 두 분이 쓰세요” 주님이 이 만나면 곳에 이미 지난 지 한참 된 철수를 챙기게 하시더니...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쓸게요 정말 고마워요” 대답하면서 권사님의 그 사람이 사역을 재직질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기에 우리 부부는 그 감격에 휩쓸려도 뒤돌아보는 일도 없이 또 다시 달려갈 것을 다짐해본다. 현지인 벨스 목사의 복음의 발이 될 그 종교차 사기 다섯 번째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다시 헤시피로 향했다.

그 다음 날 저녁 가라눔스(Garanhuns)의 타카소 린지 라울드 목사의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타카소가 생긴 후에 그 지역에 좋은 소문과 함께 아이들 부모들의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드디어 28명의 결신자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희소식이였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타카소 지역에서 주민들을 모아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남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것이다. 오! 할렐루야!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성을 질렀다. 드디어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할렐루야! 6월 18일 드디어 베를리스타 브라질 장로교회당 헌당예배에 구름떼 같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교회당 복도까지 성도들로 채워지고 창밖에는 물론 교회 밖 계단까지 그야말로 봉헌예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가지 한 가지의 소상한 보고가 자카리아스 목사를 통해 시작되는 순간부터 순서 순서마다 감격 그 자체였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회당을 원했었는지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제부터 얼마나 열심히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으로 보여졌다. 교회는 부흥할 것이며 사탄이 그토록 방해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했던 것이 아닌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님을 대신해서 필자의 남편인 김우선 목사가 설교를 했고, 특별히 성악을 전공한 목사사모의 찬양을 비롯해서 갖가지 그룹찬양 순서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찬양은 재롱만점을 넘어섰고 침례교회 남성사중창단의 축하 특별 이색찬양은 인기폭발!

남미 특유의 둔탁한 몸짓과 고조의 조화는 그 옛날 다윗을 불러 함께 춤을 주고 싶은 충동을 불러올 정도였다. 그날따라 성도들을 웃기는 남편의 설교마저 필자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남편의 포어만은 용케도 잘 알아듣는 때문이 아닐런지...

아무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까지도 응답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필자의

마음의 눈은 벌써 지옥으로 끌려가던 영혼들의 발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세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실 주님의 일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게 하였다.

한국의 예능교회는 교육관을 건축하는 삼히 큰일을 시작하면서도 광야에 길을 내고 반석에 물을 내는 주님의 선교사역을 멈추지 않는 담임이신 조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대스럼지 않게 보아도 누구하나 뒷말자 없는 머나먼 땅 브라질 이름 없는 노 선교사부부를 살피고 섬겨주시는 조 목사님과 성도들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신 모습을 대할 때마다 필자는 늘 주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배우고 익혀야할 소중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오면서 주님가신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있었다. 우리 부부에게 꿈을 주시는 여호와! 그리고 때가 되며 그 꿈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그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 부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

결국 주님은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사모님의 유방암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확인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화통화로 들었다. 오직 믿음으로 수술을 마다하신 사모님과 함께 정상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세계 선교를 위해 동분서주하실 때 내심 격정도 되었지만 “바울의 열정으로 뛰시는 조 목사님께 돕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주님! 사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할렐루야!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리며

쌍파울에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헤시피 공항에 가던 중이다. 또 한통의 전화! 부족한 여종의 저서를 읽고 나서 마음을 전해온 어느 여인의 전화였다. “내 딸아 울지마라” “내 딸아 일어나라” “담 울음소리”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미 자신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더 간절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뻐하는 그녀의 간증은 살아 숨 쉬는 믿음의 숨소리였으며 꿈틀거리는 영적 생명의 불이었다. 쌍파울에 도착해 전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종신 하나님 당신은 뉘 시기에 우리를 흥분케 하시며 주님 때문에 살았다고 소리치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을, 행함이 있는 곳에 행함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 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끝)

한국 핸드폰발거세요 702.812.4770 Kim Wray
눈, 코, 귀,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에는 전화기가 있으니 만사해결!
임대료 \$3.00 a day s. 21.00/wk
39¢ 공짜!
가격은 인건공임의 50% 수준
고급 핸드폰 제공
장기 - 스페셜 할인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중요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신앙영웅 키우기 (7면에서 계속)

5)효과-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과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힘쓰며 자부심을 가진다. 성경에 근거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큰 비전을 가진다. 신앙영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가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다.

맺는 말

지금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특별히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Christ for Next Generation"은 매우 시급히 다루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신앙영웅을 올바르게 키우자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제이다. 중요한 핵심논지는 어떻게 키우느냐이다. 바로 이 점에서 SBM이 심혈을 기울여 문제점 진단에 따라 처방과 이상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성경적 기초 위에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신앙영웅 키우기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임과 동시에 역사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 하루 속히 신앙영웅 키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회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면서 강의를 맺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 속에서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원대한 목표(사 14:24-27)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본래 주님의 몸 된 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마 16:18).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장이 멈추는 위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쇠퇴하여 몰락하는 경우도 있다.
3. 교회가 퇴보하는 배경을 보면 상당한 병적 요인이 스며들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치우치

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려하며 문제의 핵심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성경을 렌즈로 하여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4.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상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SBM이 사명을 가지고 창의적인 자료를 준비하였다. 기독교 교육이론을 비롯하여 말씀의 신앙화와 신앙의 생활화를 위해 가장 적절한 교재를 개발한 것이다.

5. 그 가운데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영웅 키우기는 참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값진 사역이다. 다음세대의 대가 끊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요구되는 일차적인 사명이다.

6. D.L. 무디가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복음을 전하며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했듯 우리도 학생 한 사람을 놓고도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시키자. 한 사람이라도 신앙영웅으로 키운다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7.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존귀한 뜻(섭리)에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굳게 서기 때문이다.

아무췌록 이번 제26회 세미나를 주최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어 하나님나라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한 SBM의 자료를 활용하여 당면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할렐루야!

▲SBM한국본부: (02) 564-3191
www.sbm.or.kr E-Mail: sbm01@hotmail.com (클)



쿠바교회, 공산주의 치하 성장 중 미 선교회 재정적 뒷받침...목회자 75명 지원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쿠바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이 성장 뒤에는 쿠바 목회자들과 미국 교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다. 미국의 Vision Beyond Borders 선교회는 현재 75명의 쿠바 목회자들을 돕고 있다.

한 쿠바 목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자신과 성도들이 많은 기도와 금식을 했고 드디어 정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쿠바에서 교회 건축을 허가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목사는 설명했다. 다른 목사는 지난 3개월 동안 8천명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의 교회에는 4천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 이 두 교회는 모두 Vision Beyond Borders 선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이다.

쿠바에는 목회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쿠바 목회자들의 수입은 열악하다. 농촌 교회의 목회자는 한달 평균 9달러 60센트의 사례비를 받는다. 도시 교회의 목회자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 한달 평균 20달

러를 받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생계를 책임지기에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쿠바 목회자들은 생계를 위해 목회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쿠바의 목사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쿠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쿠바의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된 기독교인으로써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쿠바에는 잘 익은 영적 밭이 있으며, 이 밭들은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 쿠바 목회자와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쿠바의 영적 추수를 위한 중요한 사역이며, 이러한 사역으로 쿠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2010년 개장된 Operation World는 쿠바의 인구가 1.120만 명이며, 이중 개신교 기독교인은 63만 명 정도라고 기록했다.

한국내 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박해 우려 있다" ...신앙검증 거쳐 판결

법원이 한국에 온 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란인 세 명이 각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이란인들은 앞서 법무부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되는 박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허가를 얻지 못하자, 법원에 이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란에서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 년간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대한 박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심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이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출석 중인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들 이란인들 중 일부가 출석하고 있는 한국이란인교회 담임 이만석 목사는 판결이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현재 법무부의 요

청에 의해 마지막 검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모든 사람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권리가 있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같은 권리 주장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권 국가자들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기독교

로의 개종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박해 정도가 높은 국가 출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정부의 보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슬람권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에 보호에 앞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듯하다고 이 목사는 설명했다. 이 목사는 그러므로 "철저한 검증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신중하게 이같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인도 교인들, 강제 개종누명으로 처벌

최근 인도의 카르나타카(Karnataka) 주(州)에서 기독교인 핍박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카르나타카 주의 후블리(Hubli) 지역에서 힌두 급진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했다. 헤게레(Heggere)라는 마을에서 교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기독교인에게 힌두교인들이 다가와 이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강제 개종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인들의 가방을 뒤지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지역 경찰서로 데려갔다. 기독교인들은 경찰서에서 6시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들이 종교적 민감성을 훼손했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은 받은 이 두 명의 기독교인들은 결국 감옥에 보내졌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주의 시마고(shimago)에서는 정부 관리가 기독교 학교를 폐쇄하려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이 기독교 학교인 선한목자지역 학교(Good Shepherd Community School) 교직원들이 강압적인 개종 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이후에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 학교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학생들도 교육시켜 왔다. 지역 기독교 지도자가 이 문제

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기독교 학교의 폐쇄 명령이 내려진 이후 이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선 21일에는 카르나타카 주의 비라즈벳(Virajpet)에서 경찰이 강제 개종을 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4명의 부족민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다. 이 4명의 기독교인들은 경찰서에서 약 5시간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지역 기독교 지도자의 도움으로 범행은 이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렸다. 힌두 급진주의자들은 부족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 나오는 것을 시기하여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세 가지 사건들은 모두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강제 개종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또한 카르나타카 주는 인도에서 기독교인 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개장된 Operation World는 인도 전체 인구가 12억 1,446만 명이며, 이중 74.3%인 9억 2,717만 명이 힌두교를 믿고, 14.2%인 1억 7,245만 명이 이슬람을 따르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5.8%인 7,1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Operation World는 카르나타카 주의 인구는 6,090만 명에 이르며, 이중 힌두교인의 비율은 83.9%이고 기독교인의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몰

- ▶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 **매주 2회 항공 직 수입**
- ▶ 신속하고 정확하게 핸들
- ▶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 ▶ Site에 올려있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 ▶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해 드립니다.

E-mail : gospelmal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책제목을 보내주세요
▶ 사용시 절로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1.800.404.1171

교회도서부 설치전문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할렐루야백화점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빼드립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이블 아울렛 (도매부)

성경전서 찬송가

HOT SALE

성경전서 찬송가 성경전서 찬송가

NKR73TH 22,000원 NKR73H 18,000원

\$17 \$12

오.프.기.법.특.별.세.일.안.정.판.매

대한기독교서회 성서원 미주총판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저/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새로운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 Product | LIST | HM PRICE |
|-------------------------|------------|------------|
| 2300 ANSI LUMENS 2000:1 | \$1,095.00 | \$699.99 |
| 2600 ANSI LUMENS 2200:1 | \$1,295.00 | \$899.99 |
| 3000 ANSI LUMENS 2000:1 | \$1,795.00 | \$1,199.99 |
| 3300 ANSI LUMENS 600:1 | \$3,195.00 | \$2,399.99 |
| 5200 ANSI LUMENS 1200:1 | \$6,995.00 | \$5,299.00 |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미가엘 반주기

영상 성경 찬양 연주기 미가엘

터치스크린 방식
영상프로그램 쉽게 뒤움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워진 연주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사프** **밝기 2200:1**
2600 ANSI LUMENS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미중동부지사 획득! 특별세!

헬라성구사
에어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대 최소 60마이크 획득! 한국디자인 전문업체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들이 자유로운 배부(360도 회전) 승용(1기동용 1동용) 상단전체 무중력처리 - 실교자 시력보호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연금워먼, 드레스-쟁쟁양복

이외에도 다양한 목자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샵몰**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447-4011

할렐루야백화점 **www.gospelmall.com**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HALLELUJAH BOOKS, Inc.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3)



현실적인 이슈-정서적 위기와 우리의 사역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찬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바른 소명관 및 성공관을 심어주고 내면화 시키는 이슈(Issue of implanting and Internalizing Christian View of Vocation and Success)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천박한 성공의 잣대를 지양하고 우리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일생을 통한 회심을 돕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심각하게 씨름하고 있는 그들의 정서적인 위기와 이를 위한 우리의 사역이라는 이슈(Issue of Dealing with mental crisis)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는 유명인들의 이야기도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병원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던 그렇지만도 않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삶의 좌절의 상황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울증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 드린바 우리 15세 친구들은 공부와 교우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한 전반적인 이민 적응 등의 문제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단일한 대처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녔던 교회 사역자들의 대처 또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했던 친구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던 듯 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 너무나 말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무언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활발한 친구들을 마냥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쾌활한 성격으로 주위를 활하게 하는 친구들에게서 억지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 그들의 정서상태가 이성적인 정상사고의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주체적인 힘을 동반한다면 그들의 감정적인 면면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사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창하게 조중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분명 일반적인 정서반응이 아닌 경우는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섬기던 친구들 중에 항상 잘 웃고 명랑한 사람스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모의 이혼과 재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힘이 들었을 듯 한데도 말합니다. 나중에야 그 친구가 막중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절망감으로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많이 자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많은 친구들이 속으로 괴로워하고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개인별 정서적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우선 위기정서 파악해결 후 잘 요리된 영의 양식 먹어야

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필종노도의 청소년기에 겪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한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정서적인 위기를 세심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의 몫입니다.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섬기고 있는 친구들 개개인의 정서적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흔히 자신들의 감정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편안하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정서적 위기가 가면적인 혹은 잠복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지나치게 조용한 것도 지나치게 활발한 것도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몇 년전 버지니아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참사를 일으킨 조승희라는 한인15세 학생은 지나치게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그가 쓴 글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합니다. 그가 한 여학생을 스토킹 했던 혐의로 경찰보도를 받을 당시 정서적인 문제로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고 병원 측은 그가 극심한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있음을 학교 측에 알렸으나 더 이상의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결국 그는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지요. 그로인해 학교 측은

마약, 음란한 영상, 무분별한 성생활, 게임중독 등에 쉽게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다른 기이한 탈선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역자들 모르게 우리 친구들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이를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향한, 그들의 삶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들의 정서적인 위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앙 교육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그저 그 위기에서 스스로 갇아먹는 것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정서적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시고 또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어 현재의 심리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달아서 좌절감, 절망감을 딛고 긍정적인 자아감과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역자들은 신앙적인 상담의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하며 친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의 정서적인 위기를 소홀히 남기고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일 곡과 마곡의 전쟁 (계20:7-10)

7절과 8절은 잠시 풀려나온 사단이 이때를 틈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고, 성을 두를 정도로 많다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마22: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4).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소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 만큼 그 길에

화 크고 흰 보좌 (계20:11-15)

11절, 재판장 되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앉으신 보좌를 '크고 흰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칠 것을 의미하며 보좌가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 행해질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최후심판은 모든 진행과정의 공의롭고 그 대상자가 모든 만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

수 새 하늘과 새 땅 (계21:1-8)

1절은 최후의 백보좌 심판 직후에 있을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산을 오르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산을 바라보며 올라가야

목 성령의 이끌림 (계21:9-13)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산을 오르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산을 바라보며 올라가야

금 다양성 속의 일치 (계21:14-21)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밈는데", 14절, 성곽의 기초석은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각 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보 돌은 이 성곽의 기초석이 각기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리 안에 온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

토 어린 양의 생명책 (계21:22-27)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곳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소망한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불의한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배교자 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27절). 이들은 그리스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렘17:9)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흔들고 미혹케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영적 전쟁에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는 성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임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3:18). 오직 '신앙' 곧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믿겨지지 않는다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 주저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얼마나 후회될 일이겠습니까?

현재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이될 것이며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렘3:12,13). 성경이 거듭해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당시의 질서를 상실한 이 없어질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산 아래의 도시, 하나님이 없는 쾌락과 멸망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는 것입니다. 4:3,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경은 결코 다양성과 통일성 중 어느 하나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양성 속의 일치'를 교회 근본원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도를 믿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음을 확인합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행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 또는 그들의 깊은 삶의 이야기를 헤아리지 않고서, 성경과 복음을 낯것으로 들이미는 것도 지양해야 하겠습니. 이는 그저 피상적인 뿐 그들의 깊은 심령과 삶을 만지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일굴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들이 당면한 정서적 위기에서 참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요리된 영의 양식을 먹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젊은 아이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면 아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뺀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의 때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그런 이유를 갖지 못해서 아파하는 이웃과 지구촌을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추수의 들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마다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나누는 것만으로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의 추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기에 교회는 더욱 더 영원한 안식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 | | | | | | |
|--|--|--|--|---|---|--|
|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저녁 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경명동 870-10호</p> |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영등포동 340-1 (131-231)</p> | <p>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형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김포시 김포신도시 204번지</p> |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3)3208-8419-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19-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 <p>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후 6:00(예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36-942-6876(교우관) VIA DEI QUINILTI 32-38 00175 ROMA, Italy</p> |
|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새벽 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정일동 330-5, (134-630)</p> |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평일), 오전 6:30(주일)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 <p>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622-3 (158-053)</p> | <p>새일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월요일 제외) Tel. (82)2-2646-1000, 팩스 031 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3:30 새벽 1부예배: 오전 5:0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91-3, Tel.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동두동 520 (158-808)</p> |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6-9968, Fax. 3827-1008 서울시 강동구 동두동 221-49 (142-073)</p> |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평일 제외) Tel. (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동 393동 173-26호</p> |
| <p>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5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8-8, Fax. 740-45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6-1, (1612-824)</p> |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Tel. (82)2-849-9191, 사택(82)2-844-1571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622-11</p> |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 예배: 저녁 7:3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인구 인창동 137 번지</p> | <p>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p> |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p> |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 <p>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5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p> |
|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6:30)부터 9:00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p> |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인철동 1641-24 (151-029)</p> |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3: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 <p>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4: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p> |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일동 448-23</p> |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 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6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 <p>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준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p> |

인/터/뷰 한국 최초 음악선교사 마두원 기념음반 낸 피아니스트 김애자 씨

“이 곡 통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은혜와 감동 누렸으면”

선교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복음의 햇빛이 비취지기 시작하던 때 음악이라는 도구로 선교를 했던 인물이 있었다. 마두원 선교사(미국명 Dwight R Malsbary), 그를 아는 이는 흔히 알지 못한 음악이라는 도구로 한국에 복음을 심은 자이다.

마 선교사는 1929년 미국북장로교의 음악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그는 평양숭실전문학교, 평양외국인학교에서 서양음악을 가르쳤으며 작곡가 김동진, 전 연세대학장 박태준, 오페라 가수 채리숙, 피아니스트 한동일, 백건우 등이 바로 마두원 선교사의 제자이다.

최근 마두원 음악선교사를 기념하는 음반이 나왔다. 피아니스트 김애자 씨가 마 선교사의 찬송피아노 편곡집을 재해석, 연주앨범을 내고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지난 22일 은혜한인교회 금요성령집회와 24일 디사이플교회 예배시간에 피아노 연주회를 가졌다.

마 선교사에게 사사를 받은 피아니스트 김애자 씨는 반세기가 지나서야 마 선교사의 작품이 음반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귀중한 유산이 잊혀질 것 같은 긴박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운영 목사(왼쪽), 김애자 피아니스트

하기 위해 직접 지인들을 찾아 나섰다. 방지일 목사와 대학 사역을 함께 했던 김상복 목사(분당 할렐루야교회 원로), 군 시절 마 선교사와 만남을 가졌던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등과 마 선교사가 개척한 흥천교회들을 방문했다.

다른 곳도 아닌 왜 척박한 한국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 선교사의 행적을 찾아 나선 김애자 씨는 마두원 선교사야말로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마 선교사님은 일제시대 한국에서

지만 열정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며 피아노 찬송곡들을 작곡과 편곡을 하는 등 1977년 강원도 흥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음악으로 주님을 전했다. 그는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목회, 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온 후 고려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61년 김치선 목사와 함께 대신교단의 전신인 예수장로교성경학교를 창립했다. 또한 흥천군 일대에 화전민들을 위해 27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제이드 병원을 설립했다.

또한 미주지역에서는 이운영 목사(나성한미교회 담임)와 황은영 목사(국재개혁대학교 총장서리)가 마 선교사와 친분관계가 있다. 황은영 목사는 그의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마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인연이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마선교사와 깊은 인연을 갖고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이운영 목사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들었던 기독교 서점에서 마두원 선교사의 작품이 담긴 김애자 피아니스트의 음반을 발견하고 김애자 씨의 음반을 감상하면서 마치 마두원 선교사가 다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부산에 살 때였어요. 1952년 중앙방송(현재 부산KBS)에서 마두원 선교사가 합창단을 이끌고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합창하던 것이 방송에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희 누이들이 마 선교사님이 지휘자로 있던 합창단에서 활동하셨는데요. 그러다보니 마선교사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옛날 마선교사와 함께 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이 목사는 마두원 선교사가 비록 서양인이었지만 한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한국을 가슴에 품은 목회자라고 회고했다. 그리고 그의 음반은 심령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정성이 담긴 앨범이라고 극찬했다.

우물속 생수 느낌 주는 곡...작업과정 힘들었지만 금은보화 캐낸 듯

“마 선교사님의 곡들은 화려함과 거리가 있습니다. 화려한 곡들은 연주할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마 선교사님의 곡들은 이러한 화려함은 없지만 계속 연주하다보면 마치 우물 속 깊은 데서 끄집어내는 생수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즉 작품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 선교사의 곡들을 음반에 담은 김 피아니스트의 소감이다.

“이 보석 같은 작품이 음반으로 실리기까지 작업 역시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광화문에서 연습장소인 양재동의 한 교회까지 2시간씩 이동해야 했으며 만족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했지요. 비록 곡 작업의 과정들이 힘은 들었지만 그 과정들이 마치 금은보화를 캐내는 듯해 매일 매일의 과정들이 기대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매일 지하철로 연습 장소까지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는 마두원 선교사의 영성을 재현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평양숭실전문학교에서 서양음악을 가르치셨지만 1936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학교를 그만두고 학생들과 기도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때 함께 했던 학생들 중 대표적인 분들은 방지일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등이었습니다. 그분들과 매일 만나 기도하며 또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나누며 용기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해요. 1940년 일본에 의해 강제 출국 당하게 되고 캐나다 Prairie Bible Institute에서 음악교수로 활동을 하게 되지만 1948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되어서요.”

김애자 씨가 마 선교사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됐어요. 마 선교사님 역시 그중 한사람이었는데요. 피난 시절 저희 아버지와 선교사님이 만나게 됐습니다.”

마 선교사는 비록 한국말이 서툴렀

김애자 씨는 피아니스트인 자신이 피아노 찬양사역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은 1993년 선교여행 차 러시아를 방문 모스크바 대형집회에서 연주를 한 때였다고 말했다.

“찬양사역에 대해 그다지 생각이 없었을 때였어요. 모스크바 집회 때 연주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찬송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인 피아노 연주를 통해 주님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1995년 구스런 세인트 피터스버그, 필하모니 홀에서 세인트 피터스버그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같은 해 세계선교대회에 초청으로 서울롯데호텔관에서 그리고 97년과 98년 카자흐스탄 국립오케스트라와 협연 음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찬송협주곡 등을 출시한 바 있는 김애자 씨는 언어의 장벽이 없는 피아노 찬양을 통해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보면서 건반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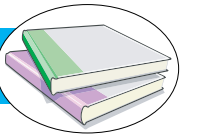
김애자 씨는 “이 앨범에 클래식 음반으로 슈베르트, 멘델스존, 리스트 등의 낭만과 분위기가 스며져있습니다. 보통 연주회나 CD를 듣게 되면 연주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마 선교사의 작품연주곡들은 마 선교사가 곡을 작업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사가 그대로 담긴 곡”이라 말하며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애자 씨는 명문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했으며 뉴욕주립대에서 석사, 텍사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 가든그로브 수장교회, 2004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다.

한편 김애자 피아니스트는 31일(주) 아틀란타 안디옥교회(허연행 목사), 8월 6일(토) 저녁 7시, 7일(주) 오후 2시 워싱턴한인교회(김영봉 목사)에서 연주회를 갖고, 10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 DC 컨벤션센터 NGO 인터액션 2011에서 마두원 선교사의 주옥같은 작품을 연주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새책 소개



“비울수록 채움받는 교회” (Soul Rush)

저자 박동서 목사

영혼 구원해 제자 만드는 교회이야기 “비울수록 채움받는 교회”가 최근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담임 박동서 목사의 칼럼집인 본서는 박 목사가 매주 교회주보에 실었던 칼럼들을 모아 두 번째로 묶은 것.

처음 5년간은 앞만 보고 달리며 개혁을 부르짖었고 다음 4년간은 상처를 치유 받으며 침묵과 회개와 기도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들이었다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성령께서 친히 목회해 주셨다

치유와 은혜 체험... 제자 만드는 교회 이야기

고 말한다. 박 목사는 비울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모든 걸림돌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그래서 세상에 공개하기 싫은 연애편지 같은 글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도 쓰셔서 천하 만물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성도와 가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출판의 용기를 냈다고 저자는 밝혔다.

책은 1부 집중하는 교회, 2부 아름다운 교회, 3부 건강한 교회, 4부 사람이 넘치는 교회 등 4부로 나뉘 1부에는 “새크라멘토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한 칼럼 19편과 2부에는 “수평이동 사절: 부흥의 불꽃처럼 퍼지다”, “성전문지기의 행복” 등 22편, 3부에는 “사순절을 바르게 보내는 방법”, “나는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할 여기는 목사인가?” 등 30편, 그리고 마지막 부에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해집니다”, “엎드리는 새가 멀리 난다” 등 36편의 이야기들을 실었다.

박동서 목사는 서울대 공대와 대학원(경영학석사), 오레곤대 대학원(MBA)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M. Div)을 졸업했으며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사역했다.

총 292페이지.

이메일:tdspark@gmail.com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참회기도, 찬양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일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일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 매월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은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